



“그 쌤의 이중생활”

다른 듯 닮은 수학&예술에서 찾는 행복

압구정고등학교
김주희 교사



- ◀ 어제, 기억하기 • The-K 인터뷰 _ 세상의 물음에 심리학으로 답하는 서울대 박금주 교수
- ▶ 오늘, 생각하기 • The-K 리포트 _ 교사 개인만의 차별화된 수업 기술의 필요성
- ⏸ 지금, 쉬어가기 • 더-쉽 _ 베트남 호찌민 한 달 살기, 그 4주간의 기록
- ▶▶ 내일, 행복찾기 • The-K Focus _ '임시정부 100주년' 역사탐방

11

2019
VOL.27

웹진



Contents

- 04 여는 글**
하늘의 가장자리에 가을이 물들면



◀ 어제, 기억하기

- 06 에세이**
일상의 즐거운 멈춤, 우리 반 가을 소풍
- 08 The-K 갤러리**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
- 10 The-K 인터뷰 1**
세상은 묻고, 심리학은 답한다
_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금주 교수
- 14 The-K 인터뷰 2**
스스로 계획하는 즐거운 실험 놀이터,
'과학의 맛'에 빠뜨리다
_ 경기도 오산 성호고등학교 김영학 교사
- 18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
영화로 민족정신을 일깨운 개척자
'나운규 선생'

▶ 오늘, 생각하기

- 22 The-K 스페셜**
수업 공개가 최고의 교육 혁신이다
- 26 The-K 리포트**
교사 개인만의 차별화된
수업 기술의 필요성
- 28 공간의 재구성**
아이들의 얼굴에 햇빛이 내렸다
_ 서울 풍문고등학교
- 32 [+25] 그 쌤의 이중생활**
이 사람, 예술이다!
_ 서울 압구정고등학교 김주희 교사
- 36 [+35] Be Myself**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 38 [+45] 티처&티처**
중년 부모와 사춘기 자녀의 필요 조건
'소통'과 '공감'
- 40 [+55] 인생 2모작**
인생 2막은 두 개의 발로부터 시작된다
_ 도보여행가 이영철

발행인 차성수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일 2019년 11월 1일

편집 수석기자 이영경
객원기자 이경희, 이성미, 정은주, 김유리
교열 정혜영

디자인 아트 디렉터 이영임
디자이너 김도윤

사진 포토그래퍼 김도형, 한제훈, 권대홍

법률 자문 김용욱 변호사(법무법인 JP)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이팝 웹개발팀
디자인, 제작 (주)이팝 02-514-7567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여 학교나 기관으로 발송해 드리며,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지금, 쉬어가기

44 지금, 여기

진정한 자유를 꿈꾸는 여행자들의 천국
_ 호주 퍼스

50 아름다운 동행

잔잔한 낭만과 책 향기 넘실대는
그곳에 우리가 있었네
_ 김기화 회원 가족들이 함께한
통영 '문학 여행기'

56 더-월

베트남 호찌민 한 달 살기, 그 4주간의 기록
_ "매력적인 베트남, 한 달 살기 어때요?"

60 라이프 연구소

어쩔, 성대마저 건강한 그대!
_ 목 건강관리법



내일, 행복찾기

The-K Focus

62 '임시정부 100주년' 역사탐방

68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과 함께한
제16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72 청춘 미디어 아카데미 교육 현장 탐방

76 The-K News

문화행사 초청 및 The-K호텔 할인 소식

78 The-K Guide

공제회의 각종 금융제도와 복지서비스
_ 보험 1편



지상 강의

80 나를 표현하는 기술, 프레젠테이션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하늘의 가장자리에 가을이 물들면

하늘의 가장자리에 가을이 곱게 물든 지금은,
천상의 별이 가장 빛나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The-K 매거진〉은 ‘글’이라는 ‘별’을 한 권으로 담아
즐거운 축제를 열었습니다.

오산 성호고 김영학 교사와 함께 색다른 과학의 맛에 퐁당 빠진 학생들의
즐거운 실험 놀이터를 만끽했고,
보석함 같이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밝은 햇살처럼 빛나는 학생들이
더욱 행복한 서울 풍문고를 찾아 거닐었습니다.
매력적인 ‘베트남 한 달 살기’를 엿보며 심과 일탈을 함께 꿈꿔보고,
‘임시정부 100주년 역사탐방’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흔적 속에 잠시 머물러 그 마음을 머금었습니다.
점점 깊어가는 가을밤, 가슴을 적시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로 가을날의 정취는 한층 무르익어갑니다.

‘The-K’라는 테두리 속에서 한데 어우러진 하루하루가
붉게 멧힌 가을 속에, 별빛 그윽한 밤하늘에
풍요롭게 물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축제 같은 오늘,
책장에 〈The-K 매거진〉을 새롭게 꽂습니다. ㉠



일상의 즐거운 멈춤, 우리 반 가을 소풍

글. 구소희(인천 부내초교 교사)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짙은 햇살이 좋은 가을이다. 교실 창문을 열고 창밖을 내다본다. 한결 서늘해진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등교하는 아이들로 조용했던 학교가 활기차다. 친구들과 재잘대며 걸어오는 아이들이 정겹다. 수많은 무리 속에 우리 반 개구쟁이들이 반짝인다. 하나, 둘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온다. 고요하던 교실이 아이들의 목소리로 이내 가득 찬다. 뭐가 그리 급한지 벌써 교실 한구석에서 가져온 돗자리를 펼쳐보기도 한다.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을 열어 챙겨온 간식부터 서로 챙긴다.

“난 고구마 싸 왔어. 넌?”

“난 사과. 애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젤리도 싸 왔어.”

“얼른 나가고 싶어요.”

매월 하는 학급 행사지만 아이들의 목소리에 기대와 흥분이 잔뜩 배어있다.

오늘은 ‘우리 반의 날, 학교 소풍’을 하는 날이다. 한 달에 한 번 교실 자리를 바꾸며 학급 행사를 한다. 우리 반의 날에는 한 달 동안 같은 모둠이었던 친구들과 간식을 나누며 서로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한다. 또, 다른 교과나 창의적 체험 활동을 더해서 체육활동을 하거나 공동체 놀이, 미술치료, 집단상담, 학급평화회의 등을 하기도 한다. 이달에는 가을을 맞아 ‘우리 반 소풍’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다. 국어과 독서 단원과 연계해 야외에서 책 읽기도 할 계획을 세웠다.

보통 우리 반의 날은 교실에서 한다. 가장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우리 반의 날이 교실 소풍으로 정해지면 교실에 돗자리를 펴기도 한다. 그러면 그 순간 교실은 딱딱한 의자와 책상이 아닌 편안한 나눔과 소통의 공간이 된다. 교실이 아이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어 나름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학교 소풍으로 바깥에서 활동할 때다.

10월, 하늘이 맑고 공기가 서늘한 가을이 왔다. 야외 활동하기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날이 너무 덥거나 추운 날, 미세먼지가 나쁘거나 비가 오는 날 등을 제외하면 일 년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좋은 계절,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실내에서만 머무르기가 너무 아쉬웠다. 며칠 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은데, 우리 반의 날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소풍 가고 싶어요.”

“공원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반의 날은 근처 공원에서 하는 학교 소풍이 되었다.

아이들이 모두 등교했다. 돛자리와 간식, 읽을 책을 한 권씩 들고 교실을 나와서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함께 공원을 돌았다. 초록빛 질던 나뭇잎이 슬슬 가을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중간중간 노랗고 붉은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벌써 가을이 다 온 것 같네.”

“지난주 까지만 해도 낮에 더웠는데 이제 시원해졌어요.”

“요즘은 창문 열어 놓으면 에어컨 바람이 밖에서 불어오는 것 같아요.”

저마다 느끼는 계절의 변화를 각자의 이야기로 풀어놓는다.

나무 그늘 아래 넓은 평지에 돛자리를 폈다. 아이들은 스스로 준비해온 간식을 예쁘게 차리고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다. 편안한 자세로 가지고 온 책을 함께 읽었다.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서로 읽어주는 시간도 가졌다. 제법 진지하게 자기가 고른 글귀를 들려주기도 하고 다른 친구가 읽어주는 글을 듣기도 했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동안 나도 아주 잠깐 책을 읽었다. 고개를 돌려 찬찬히 주변 풍경을 살펴보았다. 강아지와 산책 나온 사람들, 유모차 끌고 지나가는 아이 엄마, 친구들과 운동하러 나오신 동네 아주머니들. 자연스럽고 평화스러운 일상이었다. 사실 늘 보던 풍경이었다. 스치듯 지나치다 천천히 머물러 바라보니 햇살에 반짝이는 나뭇잎, 바람에 흔들리는 풀, 가을로 변해가는 풍경이 천천히 눈에 들어왔다.

다시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책을 읽고 있었다. 책을 읽는 모습들은 저마다 다르다. 집중하며 눈을 반짝이는 아이, 심각한 장면인지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있는 아이, 슬며시 미소를 짓는 아이 등 표정도 제각각이었다. 책 읽기에 푹 빠져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 보였다. 공원에서 자연을 느끼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읽기 경험이 아이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안 돼요, 선생님. 한 시간만 더 있어요!!”

아쉽지만 가야 할 시간이었다. 주변 정리를 하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하늘색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심을 만큼 시리도록 파랬다. 돌아가기 아쉬워하는 아이들과 잠시 함께 돛자리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준비해간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도 틀어주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살랑거리는 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은 싱긋이 웃으며 편안한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 소풍이 된 우리 반의 날. 급하게 달려가는 일상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그 순간을 함께 음미할 수 있다면 일상도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꼈다. ㉠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

〈The-K 갤러리〉는 ‘한국교직원미술대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전국 교직원들의 문화예술 창작품을 감상하면서 바쁜 일상,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비오는 오후

Oil on canvas | 65.1×53cm, 2018

한바탕 소나기와 우박이 쏟아진 후에
젖어 있는 삼청동 거리.

곽순희
서울신자초등학교



화담(花談)

박진숙
서울염경초등학교

Mixed media on canvas |
72.2x60.6cm, 2018

“꽃들의 대화”- 꽃들이 서로
화답하고 속삭이며 대화하는
사랑스런 꽃들의 모습을 표현
했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새
생명의 조화가 소망으로 피어
나는 비구상 작품임.



의상대(義湘臺)

허영남
봄내초등학교

한지에 수묵담채 | 72.7x91cm, 2018

낙산사 의상대를 흥련암 쪽에서 바라본 모
습을 그렸다. 의상대는 어느 쪽에서 보아
도 매우 아름답다. 그중 특히 동해바다와
함께 바라볼 때 느껴지는 감동은 탄성이
절로 나온다. 또 살면서 쌓였던 세상 모든
번뇌가 이 풍경 속으로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의상대사가 이 자리에서 좌
선했었나 보다.



세상은 묻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심리학은 답한다





“너 자신을 알라(gnothi seauton).”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통해 인간 내면 탐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시간이 흘러 오늘날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해주는 것은 심리학이다. 우리는 심리학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파악하고, 사회 현상이 남긴 물음표에 대한 답을 얻는다. 학교가 안고 있는 물음표에도 심리학이 답을 내릴 수 있을까? 국내 최고의 심리학 권위자인 곽금주 교수에게 답을 구해봤다.

글. 이성미 사진. 한제훈

인간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심리학(心理學)이라는 단어 안에는 ‘마음(心)’과 ‘이치(理)’, ‘학문(學)’이라는 말이 결합해 있다. ‘마음’은 정신(철학), ‘이치’는 과학, ‘학문’은 이로움을 뜻한다. 풀이하면 심리학은 ‘인간의 본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것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학문’이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의 전공은 심리학 중에서도 발달 심리학, 인간이 태어나 노인이 될 때까지 전 생애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곽금주 교수의 책 <도대체, 사랑>에는 심리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은 바로 ‘왜’입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왜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상대방이 상처받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 그럴 때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연구해 가장 근접한 결론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심리학자가 하는 일일 것입니다.”

각종 흉악 범죄에 대한 이슈 뒤로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물음이 매일 터져 나오는 현대 사회에서 심리학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심리학자는 더욱 바빠졌다. 곽금주 교수 역시 매일 그를 향해 찾아오는

● 심리학은 현 사회에서 인간이 일으키는 사건이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늘 사회문제를 냉철하게 관찰해야 하죠. 또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심리학의 필요성을 세상에 알리고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해요. 학자로서 사회에 할 수 있는 봉사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제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물음표에 맞서 한시도 쉴 틈이 없다. 그는 그동안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을 비롯해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다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요 공중파 뉴스 정보 프로그램과 토크쇼에 출연해 일반인들이 심리학과 가까워질 수 있게 했다.

<습관의 심리학>, <20대 심리학>, <마음에 박힌 못 하나> 등 무수히 많은 저서도 출간했다. 여전히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마다 신문에는 곽금주 교수의 전문가적 해석이 빠지지 않고 실린다.

“심리학은 현 사회에서 인간이 일으키는 사건이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늘 사회문제를 냉철하게 관찰해야 하죠. 또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심리학의 필요성을 세상에 알리고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해요. 학자로서 사회에 할 수 있는 봉사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제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혐오를 해결하는 열린 사고와 소통

심리학은 수많은 가지로 나뉘어 사람들의 본성을 어루만진다. 진화심리학, 인지심리학, 소비심리학, 범죄심리학 등 인간이 있는 곳에 어김없이 심리학이 있다. 이러한 심리학의 출발점이자 뿌리는 하나,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기에 심리학자인 곽금주 교수는 혐오로 물들어 있는 지금의 사회가 안타깝기만 하다.





‘네 편’과 ‘내 편’을 만드는 것은 원시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우리 편은 착한 편, 너희 편은 나쁜 편’이라는 극단적인 대립은 사회가 만들어냈다는 것.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그 무엇이기 이전에 부모로서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세대는 어릴 때부터 양극화를 습득하며 자랐어요. 남과 북이 갈라진 대한민국에 태어나 동서가 갈라진 사회에서 자랐죠. 남성과 여성으로 갈려 역할을 부여받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한 교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레 양극화가 주입되었죠.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양극화가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나서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는 혐오를 해소하는 데에는 교육이 답이 될 수 있다. 학교 안에서부터 특정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집단 개념을 해체시키고 개인을 독립된 개념으로 생각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과제에 따라 계속 새로운 팀을 만들어내고 서로 협력하는 연습을 통해 “너와 나는 언제든지 한 편이 될 수 있다”라는 열린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습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혐오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 또한 그는 가정과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진정한 소통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소통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뭐 했니?’,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라고 백 번 질문하는 것보다 자녀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한 번 같이 가는 것이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내요.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속으로 교사가 직접 들어가야 해요. 함께 움직이고 감정을 공유해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성세대의 노력이 있어야 자연스레 다음 세대가 진정한 소통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문을 맛있게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 강의실 안에서 객금주 교수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평소 그는 학생들이 딱딱한 이론에 부딪혀 튕겨 나가게 두지 않는다. 이론이 하나의 재료라면, 그의 수업은 잘 만들어진 요리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서서 그는 학생들이 심리학을 맛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요리 방법을 연구한다.

“선생님들도 경험한 적 있으실 거예요. 분명 대학에서 배운 이론인데 막상 교육 현장에 나가보니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요. 왜 그럴까요? 비유하자면, 학교에서는 이론을 ‘가로’로 가르치는데, 현장에서는 이론을 ‘세로’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학교 수업이 먼저 바뀌어야 해요. 딱딱한 주입이 아닌 말랑하게 스며드는 공감 교육, 현장 친화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죠.”

토론이 있는 수업, 정과 반이 만나 함께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객금주 교수가 바라는 교육 현장과 사회의 모습이다. 교육은 따뜻해져야 한다. 그래야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비단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의실에 찾아오는 2030 세대도 그는 따뜻한 시선으로 어루만진다. 특히 <흔들리는 20대> 강좌를 통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학생들의 답답한 속내를 어루만지고 있다.

“학생들이 위로 올라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사랑, 행복 같은 내 안의 감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심리학의 역할 또한 사건이 터진 후 출동하는 치료제보다는 사건의 발생을 막을 수 있게 돕는 예방책으로서의 학문이 되길 바란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심리학자들이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 법안을 건의하기도 한다고. 심리학을 통해 특정 세대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사회문제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로서 그의 설명이다. 심리학이 인간에게 더욱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픈 속내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그는 오늘도 연구하고, 세상에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람’에 관해 물을 때, 그는 ‘사랑’을 답한다. ㉞

스스로 계획하는 즐거운 실험 놀이터, ‘과학의 맛’에 빠뜨리다

경기도 오산 성호고등학교 김영학 교사

김영학 교사는 어려운 과학을 즐거운 과학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학생들은 그의 시간에 마음껏 떠돌고 질문하며, 동료 과학교사들은 그와 함께 더 재미있는 과학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학의 맛을 보여주는 김영학 교사를 만났다.

글. 이경희 사진. 김도형

다정하고 친절하 우리 선생님

김영학 교사를 만나기 위해 오산 성호고등학교 과학실에서 대기하지 않나 학생들이 하나둘, 과학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날 수업의 주인공은 성호고등학교 의학동아리 ‘아피스’ 회원들이다. 의학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모인 이 동아리는 김영학 교사와 오늘이 첫 만남. 김영학 교사는 소의 눈을 해부하는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김 교사가 오늘 실험 주제인 ‘소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학생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진다. 소 눈과 사람 눈의 비교, 실험 시 유의사항 등등 이번 시간의 개요와 주의할 점에 대해 쉽고 편한 설명이 이어졌다. 흰색 가운데로 갈아입은 학생들이 먼저 유튜브로 소의 눈을 해부하는 방법을 시청한 뒤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갔다. 소의 눈을 직접 만진다는 생각에 시작부터 질색하는 학생들, 제법 용감하게 메스를 들이대는 학생들, 옆에서 친구의 해부 모습을 진지하게 관찰하는 학생들까지,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소의 눈을 대한다. 김영학 교사는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살핀다. 수정체를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잘하는 학생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교사의 목소리보다 학생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교실. 사방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질문하는 소리... 바로







● 김영학 교사는 수업 방식에 대해 고민하다가 1996년 과학교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교사의 수업 사례를 보면서 과학 시간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학생들에게 색다른 접근법으로 다가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고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온라인에 자신의 수업 내용을 모두 올리는 것이었다.

김영학 교사가 지향하는 과학 시간이다. 김영학 교사는 사범대 출신이 아니다.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교직에 뛰어든 경우다.

“생물학과 수업 중에 교직이수 과목이 있었어요. 그걸 들으면 교사 자격증을 준다고 해서 이수했지요. 받으면 좋겠더라고요(웃음).”

그는 4학년 때 교생실습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한다.

“남자 중학교였는데 한 달 동안 에너지 넘치는 학생들과 무척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리고 대학 동아리로 시사영어잡지를 공부하는 모임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일이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고 발표와 설명에 재능을 보였던 그가 교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다.

교육공동체의 힘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과학 시간은 그다지 재미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건 김영학 교사도 마찬가지였다. 외워야 할 것들은 잔뜩이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은 지루했다. 시험은 늘 어려웠으니 예나 지금이나 과학을 좋아한 학생들은 전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 정도였다.

“사실 과학이 좀 어려워요. 모두 지식 위주로 암기해야 하고 개념





을 이해해야 하죠. 물론 그걸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버거워하는 애들도 많아요. 피테의 시 중에서 ‘나는 놀라기 위해 여기에 있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자연과학의 출발지점이 호기심이잖아요. 해가 뜨고 없어지고 다시 달이 뜨고…, 인간 입장에선 매우 경이로운 거죠.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는 과학 수업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다. 바로 교사가 흥분을 느껴야 학생들에게 그 흥분이 전달된다는 것이었다. 김영학 교사는 수업 방식에 대해 고민하다가 1996년 과학교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교사의 수업 사례를 보면서 과학 시간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학생들에게 색다른 접근법으로 다가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온라인에 자신의 수업 내용을 모두 올리는 것이었다.

“초보교사로서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주변 선생님들과 제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피드백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수업 지도안, 수업 동영상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2년 정도는 댓글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게시 글이 없어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댓글이 조금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재미있는 과학수업 만들기’라는 카페의 회원 숫자는 현재 8,700여 명. 전국에 과학교사 숫자가 5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1/5 정도가 가입해 활동하는 셈이다.

“온라인에서 전국의 교사들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1,000~1,500명 정도의 교사들이 카페를 방문하고 수업 아이디어를 나누며 협업하

고 있습니다. 교육의 명제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에서 ‘교육의 질은 교육 협업의 질을 넘을 수 없다’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매일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 그리고 창의성

김영학 교사의 과학 시간은 즐겁다. 학생들은 암기해야 할 것을 노랫말로 만들어 목청껏 부르고 스스로 퀴즈를 만들어내며 실험 방식을 제안한다. 김 교사는 그런 학생들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게끔 판을 펼쳐준다.

“노예는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그가 학생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떠들라”라는 말이다. 대개의 학생은 떠드는 와중에 질문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과학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갔다.

김영학 교사는 그런 학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단계에서 뭘 더 보충해서 설명해야겠다는 중요한 힌트를 찾아냈다.

“‘밤 아저씨 그림 퀴즈’라는 앱이 있어요. 난센스로 초성 퀴즈를 맞추는 건데 학생들에게 화산 단원과 관련해 직접 퀴즈를 만들어 보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로고로’라고 써놓고, 축구 골대와 골키퍼를 그려놓았네요. 평소 무기력한 학생이었는데 눈을 반짝거리며 저에게 맞춰보라고 했어요. 정답은 ‘막으막’. 즉 ‘마그막’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표현한 걸 보고 아낌없이 칭찬을 해줬고 그 뒤로 학생의 수업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교사의 힘을 믿는 교사다.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 시카고로 석사과정을 밟고 돌아온 뒤 학생들에게 더 허용적이 되었다. 그리고 칭찬의 중요성과 위력을 실천한 자신을 비롯해 우리나라 생물 교사들이 시카고에서 연수하고 돌아가 배운 것을 현장에 맞게끔 업그레이드해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들의 역량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졌다.

“교사들은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고민과 학생디어를 충분히 나눌 준비가 되어 있고 지원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자신들의 경험과 배움을 각색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되죠.”

온화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김영학 교사는 이 시대에 과학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결국 세상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그리고 과학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만의 탐구 계획도 세워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학의 참 맛’을 보게 해주려는 김영학 교사. 그는 처음 교사가 됐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으로 학생들을 과학세상으로 즐겁게 인도하고 있었다. ㉔



영화로 민족정신을 일깨운 개척자

‘나운규 — 선생’



1920년대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기에 만드는 영화마다 검열의 가위에 잘려 나가기 일쑤였다. 그러한 상황에도 나운규는 영화를 통해 조선인 관객들을 울고 웃게 했다. 나운규가 만든 영화 <아리랑>의 밀방탕에는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이를 위한 실천이 깔려 있었다. 극작가 오영진은 “진정 그가 없었다면 우리들의 지난날이 얼마나 삭막했을지 모를 일이다”라는 추도사를 남겼다. <아리랑>으로 대한민국 영화계에 새로운 획을 그은 나운규 선생을 만나본다.

글. 정상규(《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의 저자)

*정상규 작가는 지난 6년간 역사에 가려지고 숨겨진 위인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역사 콘텐츠로 알려왔다. 최근까지 514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보건 및 복지문제를 도왔으며, 오랜 시간 미 서훈(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받지 못한)된 유공자를 돕는 일을 맡아왔다.

연해주 지역에서 펼친 의병 활동

나운규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회령보통학교를 졸업 후 간도의 명동중학(明東中學)에서 수학했다. 그가 수학했던 간도의 명동중학은 겉으로는 민족학교지만 실제로는 독립군 양성 기지로 민족운동의 중심이었던 장소이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했을 때에는 명동중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회령의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나운규 역시 이곳 회령에서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경찰의 수배를 당했다.

일경에게 체포되어 허망하게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는 구사일생으로 연해주로 도주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1917년)이 일어나 백군(하얀 군대)과 적군(붉은 군대)의 내전이 한창이었고 러시아에 연고가 없던 그는 시베리아를 방랑하던 중 러시아 백군의 용병으로 입병하게 된다. 그러나 목숨을 건 용병 생활에 대한 회의로 탈영한 뒤 흥변도 장군을 만나 대한민국민회에 가입 후 연해주 지역에서 의병생활을 시작한다.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2020년은 6·25가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나운규(독립운동시절)



나운규가 각본, 감독, 주연을 맡은 영화
'사랑을 찾아서'(1928)

독립운동가로, 학생으로, 극단 단원으로

3·1운동 이후 간도 지역의 무장독립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나운규는 독립군 단체인 도판부에 가입했는데, 이 단체는 그의 은사이기도 했던 박용운이 책임자로 있으며 독립군이 간도에서 회령으로 진격하기 전 일제의 추격을 막거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터널이나 전신주를 파괴하는 임무를 띤 결사대였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 청산리 인근으로 갔던 나운규는 그곳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독립군에게 '당신 똑똑한데 군대 말고 공부를 해라'라는 조언을 듣게 된다.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독립운동 전략이 있다는 생각에 공부를 통해 더 큰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는 충고를 받아들인 나운규는 독립군 부대를 나와 서울로 돌아간다. 서울에 온 그는 공부에 뜻을 두고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예비과정에 입학했다. 그러나 훈춘사건(1920년 일본이 중국 마적(馬賊)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영사관을 고의로 습격하게 한 사건)을 일으켜 북간도로 출병한 일제는 도판부 관련 비밀문서를 획득하였고, 도판부 책임자인 박용운 등을 곧바로 체포한 뒤 곧이어 나운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체포하게 된다. 재판에 회부된 나운규는 보안법 위반으로 2년형을 언도받고 1921년 3월부터 1923년 3월까지 청진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영화배우, 영화감독 나운규의 청년 시절 모습이다.

1923년 3월 출소한 나운규는 회령에서 머물던 중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다. 1924년 1월 북선지역(오늘날 북한)을 순회하던 극단 예림회가 공연자 회령을 방문했을 때 예림회에 가입한 것이다. 예림회는 함흥에 동명극장과 함흥극장이라는 주식회사 형태의 두 개 극장이 설립되는 것을 계기로 20여 명의 청년이 조직한 소인극단이였다. 예림회 단원 대부분은 관동대지진(1923년)의 여파로 고향으로 돌아온 도쿄유학 출신의 학생들이었기에 연극 공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때 윤백남이 만들었던 민중극단 출신의 전문연극인인 안종화가 문예부장으로 초빙되어 이들을 이끌었다.

새롭게 시작된 예술인의 삶

신입회원으로 가입한 나운규는 연구생으로 예림회 무대에서 본격적인 연극배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예림회는 북선공연을 마치고 자금난에 직면하여 문을 닫게 된다. 문예부장 안중화는 민중극단 출신들이 주축이 된 무대예술연구회의 연락을 받고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한다. 그는 연극 활동에 관심이 많던 김태진(예명 남궁운), 주인규와 함흥역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안중화를 배웅하며 이별을 아쉬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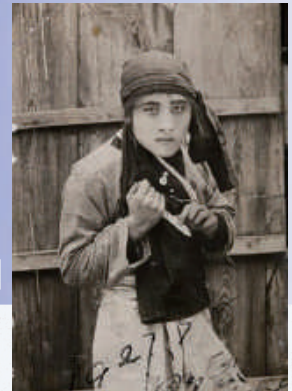
예림회가 문을 닫은 후 서울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던 중 그는 반가운 인물과 조우한다. 부산으로 내려갔던 안중화였다. 안중화의 소개로 나운규는 부산으로 내려가 조선키네마 주식회사의 연구생으로 입사한다. 이미 부산에는 주인규와 김태진이 연구생으로 있었다. 나운규는 이들과 함께 제2촬영반의 영화감독으로 초빙된 윤백남의 집에 하숙하며 영화배우로 첫발을 내디딘다. 나운규의 영화 데뷔는 조선키네마주식회사의 두 번째 작품인 윤백남 연출의 <총희의 연(寵姬의戀)>에서 가미꾼 중 한 명으로 출연한 것이다.



영화 '아리랑' 포스터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1926)의 한 장면



영화 '야서(율제)'(1927)의 나운규

윤백남을 따라 서울에 온 나운규는 <심청전>, <흑과 백>, <장한몽>등에 연이어 출연하면서 특색 있는 배우로 주목받게 된다. 이후 백남프로덕션은 문을 닫고, 윤백남을 따라나섰던 사람들 중 나운규, 주인규, 김태진 등은 조선키네마프로덕션에 입사했다.

1926년, 이곳에서 나운규의 <아리랑>이 제2회로 제작되었다. 나운규의 <아리랑>은 당대의 현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곳곳에 서양 활극영화와 같은 박진감 있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흥미를 돋웠다. 항일민족정신을 주제로 한 <아리랑>은 그야말로 이 땅의 민중들에게 일대 충격을 안겨준 혁명적인 영화가 되었다. 관객이 쏟아져 들어왔고 조선키네마프로덕션은 큰돈을 벌었다. 나운규는 일약 조선 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주목받았다.



영화 '농중조'(1926)의 나운규



영화 '금봉어'(1927)의 나운규

〈아리랑〉을 필두로 열린 나운규 전성시대

〈아리랑〉의 성공에 고무된 조선키네마프로덕션에서는 나운규에게 곧바로 다음 작품을 만들 기회를 주었다. 나운규가 선택한 작품은 〈풍운아〉였다. 〈아리랑〉보다 활극적 요소가 강했던 이 작품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로도 나운규는 인기 작품을 만들어내며 조선영화계의 스타로 군림한다. 그야말로 흥행의 보증수표와 같은 이름이었다. 그러한 나운규에게 단성사 운영주, 박승필은 독립을 권한다. 1927년 9월 나운규는 단성사의 후원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나운규 프로덕션을 세운다.

이후 나운규가 만들어낸 작품은 여전히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병어리 삼룡이〉가 대구 만경관에서 상영될 때에는 너무 많은 관객이 들어 극장 2층이 붐비되었고 진주에서는 무대에까지 들어찬 관객들로 배우들이 극장에 들어가지 못할 지경이었다. 나운규의 시대였다. 1935년을 전후하여 조선영화계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강 건너 마을〉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나운규는 한양영화사의 두 번째 작품으로 조선 최초의 토오키(Talkie, 유성영화) 영화를 만들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로 실패하게 되고, 추가 비용이 들었던 〈아리랑 제3편〉역시 실패하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폐병으로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지만 큰 빛을 진 상황에서 실 틈이 없었다. 나운규의 병은 급속도로 악화됐고, 잠시 차도가 있자 또다시 무리를 해 폐병이 악화된다. 1937년 8월 9일 나운규는 향년 36세로 사망했다. 영결식은 11일 〈아리랑〉이 개봉되었던 단성사에서 열렸다. ㉫



나운규(羅雲奎) 선생 (1902. 10. 27~1937. 8. 9)

- 한국의 영화배우, 감독, 그리고 독립운동가
- 1993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 〈아리랑〉, 〈철인도〉, 〈풍운아〉, 〈병어리 삼룡이〉 등
다수의 작품 감독 및 배우로 활동



FLIPPED

LEARNING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③

수업 공개가 최고의 교육 혁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분야는 글로벌화와 정보화에 따른 급속한 지식정보화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요구받고 있지만 그 속도에 뒤떨어져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는 산업화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습득해야 할 지식과 정보의 양은 폭증하고, 기존 지식과 정보의 생명주기는 계속 짧아지므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혁신 방식의 대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뒷받침으로 더는 미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업 공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대부분이 연결된 열린 세상이다. 수업 공개로 닫혀 있는 교실을 활짝 열어 글로벌 네트워크 세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글. 신중우(신한대학교 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육문화 콘텐츠개발전공 교수)



왜, 수업 공개를 해야 할까?

스마트 시대인 지금, 100년 전과 비교해볼 때 우리 주변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세상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만큼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화 주체의 후자로 속도가 더디다. 교실 안에서 교과서를 토대로 교사의 주입식 강의에 손을 들고 질문하는 지금의 교실 모습은 10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답이 정해져 있는 주입식 교육으로는 더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팀으로 협업하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수자의 지식 답변이 정답이 아닌, 교수자의 생각이라는 시대에 와 있다. 이처럼 시대적 교육의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은 수업 공개가 뒤따라야 한다. 교수자가 수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수업 준비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업이 공개되기 때문에 교실환경 준비 및 수업 내용과 진행을 위한 준비를 교수자가 주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공개된 수업 영상을 통해 본 수업에서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복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필자는 2011년 1학기부터 대부분의 수업을 영상 녹화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린 다음 ‘미남교수의 치기공놀이터 카페’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플립드 러닝이 교육 혁신의 시작이다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인 거꾸로 교실은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수업 시간을 더 할애하는 교수학습 방식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과제로 하던 것들을 교실에서 하고, 교실에서 하던 교사의 강의를 집에서 학습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교실 수업 전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강의 영상을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푸는 일이나 좀 더 심화된 학습활동을 동료학습자들과의 토론이나 교수자의 도움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필자는 대부분의 수업을 수년 전부터 수업 전에 미리 강의 영

상을 업로드하여 학습자들이 수업 전에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난 후 요점정리와 질문을 카페에 올리게 하여 본 수업에서는 질문의 영역을 집단지성으로 토론하고 찾아가는 교수법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로 플립드 러닝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난 후 필자의 발표 문서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교수자가 되어 동영상으로 재발표하여 수업 전에 카페에 업로드하고 있다.

이는 단지 교수자의 강의 영상을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가 직접 강의를 영상으로 발표해 봄으로써 선행학습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수업 이전에 교수자가 전달할 내용을 미리 학습해 오는 형태의 플립드 러닝은 수업 내 학생들의 참여도와 질의응답을 늘게 하고 교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쌍방향 수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요즘 학생들에게는 스마트한 수업 진행에 필요한 스마트폰 역시 완벽하게 LTE급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 강의



실의 스마트 기반의 학습환경은 아직 열악하다. 스마트 수업을 위해 필수적인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조차 불안정하고, 교수자들의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지수도 매우 낮다. 이러한 부분들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를 해결한다면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 수업에서 벗어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실시간 소통의 쌍방향 상호작용을 신나게 진행할 수 있다. 교수는 교실에서 수업하며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그들의 배경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는 학생들의 속마음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남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상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이 아날로그 수업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학생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

실시간 소통의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즉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은 수업 방해물이 아닌,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고 불통의 수업을 소통의 상호작용으로 끌어내는 데 절대적이다.

교수자는 디지털 수업자료의 전용 인터넷 주소(접속코드)를 알려주고 학생은 와이파이(Wi-Fi) 등을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 사이트에 접속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 역시 스마트폰이 없으면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쌍방향 교수법을 모든 수업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출석 점검부터 수업 진행에 이어 모든 시험까지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디지털 방식으로 치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험방식은 시험 종료 즉시 학습자들이 자신의 평가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수자 또한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수업 진행에 피드백으로 바람직하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교육의 핵심역량이다

한 우물만 파다 보면 빠져 죽는다는 시대의 키워드가 왠지 낯설지가 않다. 이제는 미디어를 사용하고 정보를 찾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지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기성세대는 그동안 배운 지식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계속 축적해야 한다.

자신만의 칸막이를 낮추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습득하거나 연계한 ICT를 기반으로 다학제적 영역으로 핵심 역량을 융합하여 시대의 동행자로 서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다가오고 있다. 문해력을 뜻하는 리터러시(literacy)는 글을 올바르게 읽어 이해와 추론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다. 즉,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나가고, 학습하고, 일하

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디지털 리터러시다. 이러한 맥락으로 최근에는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탐색한 정보의 가치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과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국에서는 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도구와 기술의 활용,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단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그리고 다양한 앱을 사용할 줄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탐색하여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필자 또한 치과기공학 전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에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을 연계하고 수업의 학습성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스마트 교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수강 학생들의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주차별 학습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포트폴리오로 제작하여 업로드하게 하는 것이다.

이외에 수강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수업 준비와 동영상 발표를 통한 유튜브 업로드와 공유를 진행 중이다. 학생들은 졸업 시 졸업장과 성적표 외에 대학생활의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포트폴리오 플랫폼으로 공유하여 URL을 가지고 졸업하게 된다.

수업 공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선두그룹이어야 할 교육 분야가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아날로그 세상의 20세기 교수들이라도 디지털 세

상의 주역인 21세기 학생들에게 미래교육의 지식 채널로 가르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질문에 정답이 없는 세상으로 창의성과 상상력이 답이다. 따라서 무한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업 공개는 더는 미룰 수 없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요체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역량으로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확장될 것이다. 우리 대학들이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콘텐츠를 소셜 미디어 세상에 공유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을 바탕으로 대학의 생존과도 연결되는 시대적 책무이다.

수업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다소 힘들 수 있지만 수업 공개를 자신의 모니터링 관점에서 개선하고 넓혀 간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전문 혁신가로 터닝할 것으로 확신한다. ㉔



교사 개인만의 차별화된 수업 기술의 필요성

공교육에서 교실 수업의 변화는 중요한 화두이다. 학습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수업에 끌어들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들은 다양한 수업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 하지만 가르치는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선생님이 원하는 수업 기술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이 필요하다.

글. 윤재열(경기 천천고 수석교사)

일반화된 교수법 따라 하기는 교사의 전문성 위축시켜

최근 공교육에서 교실 수업의 변화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 등 각종 연수에서 실무 중심의 수업 기술을 배우는 선생님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관심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갈수록 학생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여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교직 경력과 관계없이 모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이 집중할 수 있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키게 하는 수업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

연수를 통해 배우는 토론(토의) 학습, 협동(협력) 수업, 거꾸로 수업, 하브루타 수업, 프로젝트 수업, 비주얼 싱킹 등의 교수법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들 수업 형태는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변했다는 측면에서 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행 과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몰입도도 높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 유행하는 수업 기술은 유용성이 검증된 수업 전략이기 때문에 얼마간의 도움은 된다. 하지만 이런 것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성찰이 필요하다. 유행하는 수업 기술 적용은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법 적용에 급급하면서 오히려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교사는 자기 개성 혹은 학급 환경의 고려 없이 표준화된 수업 형식만 신경 쓰다 보니 수업의 결만 바꾸는 데 치중하게 된다. 이런 기술들은 무수한 변인들을 극복하고 만들어진 교수법이다. 학생들의 성향과 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려한 모습만 보고 수업을 따라 하면 여전히 학생들은 수업의 바깥에서 머물게 되고, 수업에서 점점 소외당하는 경험만 한다.

교직의 전문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수법 강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일반화된 교수법은 오랜 경험과 특별한 노력으로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수업을 효율화하면서 얻은 결과다. 이 결과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이론을 읽고 실천을 하는 격이다. 수업 전문가인 교사라면 자신의 실천을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이론의 합리성을 생성하고 터득해야 한다.



가장 좋은 수업 기술은 학생 성향을 고려하고 설계한 것

교육정책과 교수법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조벽 교수는 유능한 교사의 핵심적 특성의 하나로 깊은 믿음, 학생들의 처지를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입, 학생들과의 유대감,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들었다.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수업 기술은 학생의 성향을 고려하고 설계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기억에도 수업 기술이 화려했던 선생님은 생각이 가물가물하다. 오히려 우리들을 이해해주고, 내면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던 선생님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러 있다. 학생들은 개인화가 중시되면 자기 주도성이 활성화되어 주체적,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학습자의 연령, 흥미, 능력 등 일반적 특성부터 학습에 대한 탐구력을 고려하여 성공의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수업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화된 교수 학습의 과정을 지양하고, 학생의 다양성에 맞추어 개별화할 수 있는 수업 기술을 실천해야 한다. 물론 널리 알려진 교수법에 대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교수법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문제는 교수법이 좋은 수업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점이다. 도구적 관점을 지니지 못하면 수업이 진행될수록 이론의 정교함에 압도되어 교사의 수업 역량은 성장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을 배우게 하는 것인데, 이 중요한 목적이 수단에 가려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방탄소년단(이하 방탄) 성공 과정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교사들도 교수법과 관련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방탄은 세계 진출에 필수로 여기는 외국인 멤버나 영어권 출신의 교포가 없다. 유명 기획사가 배출한 그룹도 아니다. 그런데도 세계에 이름을 떨쳤다. 이유는 간단하다. 방탄 고유의 색깔로 승부를 걸었다. 자신들의 진솔한 메시지로 노래를 했다. 모두가 지상파로 눈을 돌릴 때 유튜브와 SNS를 통해 자신들의 길을 개척했다. 지금은 학습지 등 수업 콘텐츠 제작도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다.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제공하고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도움을 받는다. 이런 마당에 내 것이 아닌 남의 수업 방식에만 얽매는 것은 위험한 부분이 많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교사로서의 역동성과 충만성을 잃어버린다. 교사의 전문성은 물론 주체성, 자율성마저도 없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다. 외부에서 파생된 수업 기술을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 수업은 업무가 되고 지치게 된다.



‘내가 만든’ 수업,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을 해야

현장에 있어보니 교사들이 수업 기술이 부족하거나, 수업 진행 능력이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학습 의욕이 없는 무기력한 아이들, 그리고 가끔은 거칠게 반응하는 아이들을 다독거리며 가야 하는 고민이 힘들게 하는 것이다. 수업 기술보다 아이들을 더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선생님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깊이 연결된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교실 속에 있는 선생님은 수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훌륭한 수업 기술보다 ‘내가 만든’ 수업,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을 해야 학생도 성장하고 선생님도 성장하는 경험을 한다. 선생님 ‘스스로’가 성장해야 ‘나’의 힘이 만들어진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교실의 복합성을 고찰하고 경험으로 배우는 교사가 돼야 한다. 거기에는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나만의 수업 기술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K)



아이들의 얼굴에 서 울 풍 문 고 등 학 교 햇빛이 내렸다

1937년 종로의 옛 안동별궁 터에 세워진 이래 82년간 역사를 이어온 풍문여자고등학교가 2017년 강남 자곡동으로 자리를 옮겨 남녀공학인 풍문고등학교(이하 풍문고)로 재개교했다. 정독도서관까지 이어지는 단정한 감고당길 돌담, 교정을 물들이던 노오란 은행잎 등 ‘풍문’ 하면 떠오르던 풍경도 덩달아 바뀌었다. 어디서나 햇빛을 맞이하며 자유롭게 토론하고, 마음껏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오늘날 풍문고의 상징이 되었다.

글. 이성미 사진. 김도형

●
“기존의 ‘학교’라는 공간이 가진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 획일화된 교정, 낡고 딱딱한 교실 등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교과교실제, 토론 학습, 창의 인재 양성 등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공간에 담자는 것이었죠.”



풍문고의 어제를 담은 보석함 같은 공간

풍문고의 전신인 풍문여고는 과거 조선 왕실 가족이 혼례를 올린 안동별궁이 있던 자리에 지어졌다. 이에 풍문고는 2013년부터 매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및 순종·순정효황후 가례 재현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학교의 역사를 알리고 있다. 학교가 강남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풍문의 역사와 가치가 계속 보존·계승되길 바라는 마음이 공간 곳곳에서 드러난다.

풍문고 진입로 정면에 위치한 행정 및 특별교과동 입면 디자인은 한국 전통 담장의 모습을 차용해 옛 학교의 정체성을 살렸다. 또 학교 뒤뜰에는 감고당길 돌담과 기와를 그대로 재현하고, 산책로 군데군데 기반석(基盤石)과 은행나무 그루터기를 가져와 두었다. 안동별궁 터에 있던 하마비(下馬碑)도 학교 출입문 오른쪽에 옮겨 놓아 등하교 시 학생들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했다.

“학교 건물을 설계하면서 기존의 ‘학교’라는 공간이 가진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 획일화된 교정, 낡고 딱딱한 교실 등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교과교실제, 토론 학습, 창의 인재 양성 등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공간에 담자는 것이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추억이 깃든 풍문여고의 옛 정취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해달라’라고 말하면서요.”

김길동 교장의 말처럼 학교 건물은 주변 풍경과 친근하게 살을 맞대었던 과거의 온기까지 닮았다. 숲을 마주 보고 있는 일반교과동 외벽은 굴곡진 형태로 숲의 형태에 맞추어 있고, 창문마다 형형색색의 루버를 부착해 꽃이 핀 듯 자연과 어우러져 있다. 이러한 노



력 덕분에 졸업생들은 풍문고에서 옛 학교를 잃어버린 슬픔보다는 추억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기쁨을 먼저 만끽하게 된다.

어디서나 '통'하는 열린 학교

미국의 철학자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참된 교육의 비결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데 있다”라고 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학생들을 존중하는 공간에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풍문고도 모든 공간을 학생 중심으로 지었다. 풍문고는 행정 및 특별교과동과 일반교과동 2채, 기숙사, 실내 체육관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교내 다섯 동의 건물은 겉에서 보기엔 분리되어 보이지만 원형 중정과 지하 통로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 덕분에 학생들은 곳은 날씨에도 불편함 없이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각 층, 각 동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 학교는 교내 통행로 폭을 넓히고 사물함을 교실 밖으로 빼놓아 학생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물품을 들고 원하는 교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교실제(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 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수업시간마다 교과교실로 이동하며 수업

을 듣는 학교운영방식)’에 맞춘 최적의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일반 교과동과 특별교과동을 잇는 원형 중정도 공간 간의 소통을 말한다. 중정을 향해 낸 창문으로 모든 공간은 서로를 마주 본다. 또 중정 덕분에 건물 어디든 바깥의 공기와 햇빛의 침입을 허락할 수도 또 막을 수도 있다. 중정의 둥근 외벽을 통해 학생들의 웃음소리는 하늘에 닿는다.

이외에도 학교 안에는 열린 공간이 속속 자리해 있다. 학생들이 직접 꾸미고 관리하는 학습카페, 도서관 안에 마련된 토론실,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크고 작은 야외공연장 등이 그것. 또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답게 ‘밥상머리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실 한편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이야기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해두었다.

모두에게 열린 공간, 모두가 사랑하는 학교

학생 중심으로 지어진 이 학교는 ‘2017년 교육부 선정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풍문고가 우수시설학교로 선정된 데에는 최첨단 시설도 한몫했다. 학교가 가장 자랑

하는 공간은 풍문콘서트홀이다. 풍문콘서트홀은 총 403석의 넓은 공간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최고급의 음향, 조명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안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는 방송실을 통해 전교에 생중계된다. 교사의 역량 강화 및 수업 질 향상을 위한 최첨단 공간도 있다. 수업분석실 안에 배치된 카메라는 교사와 학생들의 동작을 촬영하고 기록하여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돕는다. 이를 통해 교사는 수업 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동료 교사들과 공유한다.

전 교실에 설치된 무반사 유리 칠판과 빔프로젝터, 교내 공지사항을 알려주는 LCD 게시판, 완전한 방음이 가능한 개인 악기 연습실과 전자 칠판이 설치된 음악실 등 학교 전체가 보석함과 같다. 교실마다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공조기, 공기청정기와 ‘지열(땅 표면으로 흘러나오는 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 또한 풍문고의 자랑이다.

“학교는 지역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문을 닫고 학교를 우리만의 공간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발전해나가야 하죠. 동시에 학교에서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김길동 교장의 말처럼 풍문고는 이토록 좋은 교내 공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쓰고 있다. 운동장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행사 시 다양한 주민 참여가 가능하고, 가정실에서는 ‘따봉



(따뜻한 봉사활동)’ 회원 및 학부모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반찬을 만든다. 풍문콘서트홀도 주민들과 문화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다. 또 앞으로 행정동 옥상에 천문대가 지어져 풍문고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과 관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두가 사랑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공간에서 학생들은 노란 은행잎처럼, 밝은 햇살처럼 환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다. ㉞





오늘, 생각하기

[+25] 그 쌤의 이중생활

〈그 쌤의 이중생활〉은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수학교사이자, 감성 충만한 예술가로 학생들과
교감하는 김주희 교사의 이중생활을 만나보세요. ▶



Teacher



이 사람, 예술이다!

서울 압구정고등학교 김주희 교사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누군가는 리듬에 맞춰 발을 까딱이고,
누군가는 노트에 드로잉을 하며, 또 누군가는 갤러리를 거니는 한갓진 풍경으로.
모습은 다르지만, 그 순간 삶의 디테일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사실만큼은 같을 테다.
여백의 시간이면 이끌리듯 캔버스와 마주 앉는 김주희 교사.
수학교사이면서 동시에 화가인 그에게 예술은 휴식이자 세상과의 대화다.
글. 정은주 사진. 한제훈

&



Artist

다른 듯 닮은, 수학 그리고 예술

작품을 보면 그가 읽힌다. 파스하고 세심하며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재주가 특출한. 캔버스로 옮겨온 화분, 꽃, 찻잔, 빵 같은 소재들은 분명 그의 시선이 닿았던 것일 터.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은 작가의 생각이 더해져 비로소 예술이 된다. 누군가는 궁금해할 게 분명하다. 어째서 화분이고, 어째서 찻잔이냐고. 이걸 꼭 짜인 하루하루, 잘 해내야 할 일이 쏟아지는 삶에서 그가 찾아낸 여백의 흔적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의 시처럼, 주변의 소소한 것들 역시 관심을 두고 표현하는 순간 특별한 의미가 담긴다는 것. 김주희 교사가 어딜 가나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는 이유다. 이토록 감성 충만한 수학교사라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학문, 그리고 지극히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예술의 조합은 의외라는 놀라움을 넘어 신선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면 참 많

이 님은 게 또 수학과 예술이다. 수학의 궁극은 세상과 만물의 근본 이치를 찾는다는 점에서, 또 예술의 궁극은 인간 내면의 깊은 본성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말이다.

“하면 할수록 수학과 예술이 깊은 곳에서 하나로 만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건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볼게요. 종이를 잘라 양 끝에 수학과 미술을 놓으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종이 위에 있으니 분명 연결이 되어있지요. 그리고 절반만큼 비틀어 양 끝을 붙이면 뫼비우스 띠가 되고, 멀었던 수학과 미술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경계는 우리의 관념이 만든 것 같아요. 가장 먼 것이 가장 가깝기도,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멀기도 하지요.”

갑각이 깨어나는 시간, 그림과 함께

김주희 교사의 학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늘 수학 정석을 끼고 있을 만큼 수학을 좋아했고, 동시에 그림 그리기를 즐거워한 학생. 수학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에 입학했지만, 여전히 그림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고민의 끝은 ‘다시 시작하자, 그림을 그리자’로 귀결된다. 그래서 사범대 졸

업 후 새롭게 미대 입시를 준비했고, 사범대생에서 미대생으로, 전혀 다른 세계로 기꺼이 발을 내디뎠다. 그는 동양화를 전공하며 창작이라는 꿈을 꾸던 당시를 ‘정말 열정적이었다’고 회상한다. 수학 전공자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자신만의 작업 방식도 그때 발견해냈다.

“학부에서 계속해서 다룬 재료는 전통 한지인 순지와 장지 그리고 먹과 분채였어요. 저에게는 매우 어려운 재료였지요. 그래서 체계 맞는 방식을 연구했어요. 먹을 올리고 분채를 올린 순지들을 접고 또 접어 그것을 손으로 자릅니다. 손바닥 크기로 만든 조각들은 다시 빈 화면에 올리고 또 올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냈죠. 수학으로 치면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는 것과 같은 순서였어요. 그 방식으로 1회 개인전에서 전시를 했어요.”

교직에 대한 애정이 싹튼 것도 바로 이 무렵. 미대 재학 시절, 학비 마련을 위해 수학교사로 지냈던 몇 개월의 경험이 계기가 됐다. “그 또한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50여 명의 학생이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떠나는 날 학생들에게 손편지와 종이학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교직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구나, 하고요.”

Artist

&





명상으로 발견, 마음 빼기의 이로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 지 16년, 작품 활동은 틈나는 대로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몰입도를 높인다. 2008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지난겨울 일곱 번째 개인전을 열었으니, 참 열심히 달린 어제들이 눈에 선하다. 그는 교사와 작가, 두 가지를 치우침 없이 지속할 수 있었던 데는 명상의 힘이 컸다고 말한다. 10년 전 교원 연수에서 처음 명상을 접했는데, 자신의 마음에 대해 이해하고, 돌아보고, 또 그 마음을 비울 수 있었던 시간으로 지금까지 기억된다.

사실 명상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행위이면서 더불어 타인을 깊이 이해하는 수련이기도 하다. 내면의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화가, 학생들과 교감하고 소통해야 하는 교사에게 아마도 꼭 필요한 부분. 그는 명상을 접함으로써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한다.

“교사로서 학생들과의 교감은 참 중요합니다. 교감해야만 제 마음의 지지와 응원이 진짜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건 저의 행복이기도 하고요. 명상이 이를 가능케 했어요.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숨 쉬듯 살기 위해서는 꾸준히 명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기 초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명상하는 교사’라는 타이틀을 덧붙이곤 한다. 또 수업 시간에는 5분 정도 함께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고민이 많아 마음을 비우고 싶을 때, 혹은 집중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된다는 학생들의 반응이 반갑다. 개인적으로는 지역명상센터에서 꾸준히 명상을 지속하며 주말에 시간을 더 내서 집중명상을 하는 식으로 마음을 다스린다.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마음빼기 명상전문가로서 교원 명상 연수에 도우미로 참여하기도 한다.

“명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상상해봅니다. 아마 참 힘들었을 거예요. 명상으로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긍정적인 시선이 짙어졌으며, 욕심 없이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요. 저에게는 큰 변화예요.”

가까워진 행복, 잘 사는 것에 대하여

교사의 시선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화가인 덕분에 다채로운 세상과 접할 기회가 잦다는 건 그래서 그에게도 크나큰 설렘이다. 시야가 넓어질수록 삶을 바라보는 모습 또한 바뀌는 건 당연한 결과. 김주희 교사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근사한 통로, 마음을 돌아보는 명상에서 사람과 사람간의 벽, 예술과 수학의 벽을 허무는 실마리를 발견한다.

“예술체험이 중요하지요. 그런 점에서 예술과 명상은 통하기도 합니다. 수학을 가르치지만 수업 시간에 명상을 하고 연극반, 낙서그림반, 미술관 탐방반 같은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던 것은 학생들이 이런 활동으로 자신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앞으로도 그 연결고리들을 풀어내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는 말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곳에서 순수함과 진리와 진정한 사람다움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학생들에게 전해진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제 삶의 모토는 ‘잘 사는’ 거예요. 참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결의 사람들과 따뜻함을 나누며 함께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는 걸 ‘잘 사는’ 삶이라 정의 내리려 합니다.”

그러려면 열린 마음이 필요하겠고,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테다. 거창할 건 없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혹은 그림 한 점으로도 족하다. 어느새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울림이 있는 그의 그림이 가슴속으로 걸어 들어온다. **㉠**



Teacher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주도적인 사람은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태도의 사람이다. 행동은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지 결코 우리를 둘러싼 여건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으로 하고, 그 책임도 질 수 있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집 지은 사람의 잘못일까?

우리의 삶이 주위의 여건이나 상황 등에 따라 좌우되는 이유는 그것들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자연재해와 같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행동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이 책임을 수용하는 사람이 삶을 주도하며, 삶의 즐거움과 에너지를 창조한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이다. 평소 도자기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던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날 조그맣고 고운 빛깔의 도자기 하나를 사 가지고 왔다. 그 순간 새로운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반한 톨스토이의 여동생은 그 빛깔의 도자기를 달라며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도자기를 하루에 한 번씩 일일이 닦아서 보관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던 아버지가 그것을 선뜻 내어줄 리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있을 때였다. 여동생은 아버지가 기분 좋은 틈을 타서 다시 한번 도자기를 달라고 졸랐다. 이번에도 역시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자 여동생은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대신해 여동생에게 도자기를 주었다. 간신히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도자기를 손에 넣은 여동생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래서 오빠에게 자랑하기 위해 톨스토이의 방으로 뛰어갔다.

그때였다. 여동생이 오빠의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도자기를 떨어뜨렸고 그것은 그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러자 여동생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랬어요! 우리 집을 지은 사람이 대체 누구예요? 누가 우리 집을 이렇게 지어서 나를 넘어지게 한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집을 지은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여동생을 본 톨스토이는 어이가 없었고 이 일은 어린 톨스토이의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았다. 훗날 그는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집 지은 사람의 잘못일까?>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대하는 태도

불쾌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책임을 묻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정반대로 할 수 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질 수 있다.

‘책임(Responsibility)’이란 ‘반응(Response)’과 ‘능력(Ability)’이 합쳐진 단어다. 즉, 반응하는 능력이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모든 상황이 내 책임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을 선택한다면 자기 삶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을 창출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산 정약용은 귀양살이를 통해 깊은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 시간은 최고의 실학자가 된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그는 “남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 탓임을 알았다. 그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고작 밤 한 톨이었다. 가버린 것을 좇을 수 없고 장차 올 것을 기약하지 못한다. 천하에 지금 눈앞의 처지만큼 즐거운 것이 없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라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다. 그 태도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고, 실제 상황도 바뀌어갈 수 있다.

책임의식이 나를 성장시킨다

하버드대학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깨달음은,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고 했다.

태도의 변화는 결국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 작은 일련의 행동이 모여 인생 자체를 변화시킨다. 우리 삶에서 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자신을 알아차릴 때마다 스스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며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주도적인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가 가능한 부분에 집중시킨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보다는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다.

책임의식이 나를 성장시킨다. 작은 부분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먼저 신경 쓰고, 그 일에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호관계 속에서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며,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질 때 상황의 주인이 되고, 상황의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된 삶이 된다. ㉞



중년 부모와 사춘기 자녀의 필요 조건 ————— ‘소통’과 ‘공감’

Facilitation

Empathy



부모라면 자식으로 인해, 누구나 가슴에 한두 가지씩 큰 돌을 올려놓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리 내려놓으려 해도 부모인 이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부모들은 수많은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산다. 특히 사춘기 자녀와 함께 중년이 되는 부모들은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그 돌의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년 부모와 사춘기 자녀가 함께 건강한 성장을 하려면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 글. 김동철(심리학 박사)

중년 부모들의 건강, 안녕하십니까?

중년이 된 부모들은 부모라는 역할 속의 나와 자신의 온전한 건강을 위해 한 번쯤은 다각도의 건강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건강은 자신의 정신적 면역, 특정 스트레스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아는 정신적 건강 척도이다. 몸의 질환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수많은 이슈가 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극도의 스

트레스와 지속적인 심리적 문제가 신체의 면역을 급격하게 떨어뜨려 질환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예방해도 극도의 심리적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이다. 한국 중년 남녀들의 질환 관련 논문들을 보면, 중년의 나이에는 누구나 한두 가지씩 보유 질환이 있는데 갱년기 증상과 더불어 가족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질환의 확장성이 수직으로 상승해 결국 손 쓸 수 없는 위급 단계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 극도의 스트레스 중에는 중년이면 누구나 느끼는 책임감 그리고 노후 미래에 대한 염려, 그간 쌓아온 누적된 부정심리가 결국 소진 증후군이나 번아웃으로 생겨나는 일이 빈번하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의 지속되는 문제라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일반적 사회생활의 문제도 있겠지만, 특히 가족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가 중심을 이룬다. 민감한 사춘기 자녀들의 나이와 부모의 나이가 하필이면 서로가 어려울 때 맞물린다는 것이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족이 갱년기의 부모와 사춘기의 자녀가 만나면서 극도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생겨 서로에게 큰 상처를 만들기도 하며, 남들보다 못한 서먹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로 인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결국 심각한 정신 문제가 생기며 그 발화점은 심각한 건강의 적신호가 되는 것이 의학이나 심리정신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서야 비로소 고통을 호소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이기도 하다.

믿음을 토대로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라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갈구하고 소통하며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족 집단에서의 혈족애이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유전적 동질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마치 자아를 사랑하듯 거짓과 꾸밈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며 본능적 사랑이다. 그러나 사춘기 시기의 자녀의 모습은 부모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핑크빛 연대는 아니다. 그렇다고 큰 틀을 벗어나 망나니처럼은 아니겠지만, 그 시기 자녀들은 자기애가 커지며 또래 집단의 물입이 강해져서 부모 이상으로 친구에 대한 긍정적 다변화 감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부모와 자식은 동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그 세대에 느끼는 정보와 가치는 너무나 큰 시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진정한 믿음의 관계라 단정 짓기 어려울 수 있다. 믿음이 강력하지 않다면 결국 자녀들의 소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가족이 느끼는 감성적, 정서적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녀들은 경제적 지원만 원할 뿐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편향되고 줄어들어 부모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녀 역시 최선을 다해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내어 보지만 결국 사춘기 자녀들은 부모와의 갈등을 온전히 부모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의식 정도가 비슷한 또래에게 그 해답을 찾는 경우가 많다.



믿음이 강력하지 않다면 결국
자녀들의 소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가족이 느끼는 감성적, 정서적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녀들은
경제적 지원만 원할 뿐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편향되고 줄어들어
부모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결국, 그 정보를 가지고 부모와 대화를 했다간 오히려 더욱 미궁으로 빠져드는 꼴이 되어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사춘기 자녀들은 인지적 혼란이 오기도 하며 피해 의식, 투쟁 의식 등이 커져 부모의 건강이 담보되는 올바른 훈육, 교육이 필요하다.

대화와 편지로 소통하며, 공감하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속앓이를 하고, 자녀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공감해야 한다. 매일같이 서로가 숨바꼭질하듯 찾아 헤매지 말고 작은 행동하나 말 하나를 부모에게 어필하고, 부모와 자녀는 가족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인정해 주는 소통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는 스스로 자녀의 꿈을 이루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애를 쓰며 그 자녀는 부모의 꿈과 희망이 되어 서로의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 한번 새겨진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기도 힘들지만, 서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조차 부정성을 갖게 된다. 그렇기에 시작부터 바로잡지 않는다면 오래도록 어려운 과제로 남을 수 있다. 그 소통의 여정을 위해 틈틈이 짧은 대화에서도 진솔함을 느낄 수 있도록 편지 또는 메모를 활용한 방법이 좋다. 또한 함께 산책하고, 함께 운동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조금씩 소통 시간을 늘려나가자.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녀가 찾으려는 꿈을 위해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한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의미 있는 공감이 될 것이다. (K)



인생 2막은
두 개의

발로부터 시작된다

도보여행가 이영철



프랑스의 선사학자인 앙드레 르루아 구량은 그의 책 <세계의 뿌리>에서 “인간이라는 종(種)은 두 개의 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했다. 인류는 두 발의 쓰임을 알게 된 이후부터 수천 년 동안 이를 요긴하게 사용했다. 많은 부분을 바퀴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발은 우리에게 최고의 이동 수단이다. 이영철 작가는 이 두 발을 인생 2막에서 열정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유’와 ‘전문가’라는 칭호를 얻었다.

글. 이성미 사진. 김도형

매일 더 건강해지는 ‘걷기’의 매력에 빠지다

“바보는 방황하고 현자는 여행한다”고 했다. 방황하기 쉬웠던 시기, 여행을 택한 덕에 바보는 면했다. ‘걷는 여행’을 택한 것은 더더욱 행운이었다.” 이영철 작가의 <죽기 전에 꼭 걸어야 할 세계 10대 트레일> 서문에 적힌 글이다. 그의 노후를 정리하는 문장이기도 할 것이다. 노후란 육체의 고단함을 거부할 수 있는 시기다. 길고 긴 휴식의 안락함에 빠진다 한들 비난할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고단해지기로 했다. 걷는 여행을 하면서 ‘고단함과 행복은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500년 전 서양 의학의 선구자인 히포크라테스는 ‘최고의 약은 웃음, 최고의 운동은 걷기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곳을 걸으며 여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과 웃음 모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걷기 예찬은 2005년부터 시작됐다. 어느 날 직장에서 얻은 고뇌를 잊을 요량으로 밖으로 나간 그는 집 근처의 산을 넘고 하천을 따라 40여 km를 걷고 돌아왔다. 그러자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걸으면서 계절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즐거움은 덤이었다. 걷기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해주진 않지만, 생각의 무게를 덜어줄 수는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후로 그는 걱정거리가 없어도 짐을 꾸려 집을 나섰다.

그러다 문득 ‘퇴직을 하면 본격적으로 세계의 아름다운 길들을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버킷리스트를 짜기 시작했다.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고 가고 싶어 하는 길, 개인의 관심과 취향에 잘 맞는 길.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네팔 안나푸르나 서킷,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뉴질랜드 밀포드 트랙 등 10대 트레일을 리스트에 올렸다. 국내 트레킹 코스와 집 주변을 걸으며 체력을 다지고, 여행지를 공부하고, 여행을 다녀온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연습을 철저히 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자 직장생활에도 더욱 충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12월 퇴직과 함께 그의 본격적인 해외 트레킹이 시작됐다.



●
힘든 만큼 여행의 노하우가
생기고, 길에서 보낸 시간에
비례해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여행하며 경험한 것을
매일 기록하고 한국에 돌아와
정리했다. 여행에서 얻은
지식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



언제든 쉬어갈 수 있어서 나는 노후가 좋다

첫 해외 트레킹 코스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서킷에서는 설렘과 두려움이 서로의 지분을 두고 다투었다. 고산병과도 싸워야 했다. 그러나 막상 해내고 나니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 후로는 한 번도 두려움이 설렘을 앞서지 못했다. 그렇게 5년 만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782km), 영국 횡단길 Coast to Coast Walk(315km), 유럽 몽블랑 둘레길(176km) 등 계획했던 세계 10대 트레일 모두를 걸었다. 총 2,032km에 달하는 대장정의 길이였다.

“사람들이 ‘계속 걸으면 힘들지 않느냐?’라고 묻곤 해요. 물론 힘들어요. 가파른 산길과 해안길, 낯선 나라의 여행지를 걷는다는 건 분명 힘든 일이죠. 하지만 걷다가 힘들면 쉬어가면 돼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깐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노후란 그래서 좋은 것 아니겠어요?”

힘든 만큼 여행의 노하우가 생기고, 길에서 보낸 시간에 비례해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여행하며 경험한 것을 매일 기록하고 한국에 돌아와 정리했다. 여행에서 얻은 지식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 그리하여 <안나푸르나에서 산티아고까지> (2013), <동해안 해파랑길, 걷는 자의 행복> (2014), <영국을 걷다, 폭풍의 언덕을 지나 북해까지> (2017), <투르 드 몽블랑> (2017), <죽기 전에 꼭 걸어야 할 세계 10대 트레일> (2019) 이렇게 총 5권의 책을 펴냈다. 어느새 그에게는 ‘작가’, ‘도보여행 전문가’라는 칭호가 생겼다.

“처음 걷기 여행을 떠났을 때는 저조차 ‘도보여행가’로 살아가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걷는 것이 좋아 계속 걸었을 뿐인데 이것이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줄은 몰랐죠.”

여행은 그의 도착점을 계속 바꾸었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여행가, 작가, 강연자 등으로 수없이 걸어야 할 길을 만들어냈다. 지금 그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삼남길, 의주



길, 영남길 등 경기옛길을 복원하고 안내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글을 쓰고 있다. 단순히 옛길을 찾아서 걷는 것이 아니라 길목마다 깃들어 있는 우리 문화와 역사를 글로 풀어내는 것이다. 끊임없이 걷고 배우며 그의 지식은 나날이 더 깊어지고, 그는 매일 더 건강해진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도보여행가이자 작가로서 살아온 8년, 이영철 작가는 인생 2막을 여는 데 가장 필요했던 것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응원'을 꼽는다.

“많은 사람이 ‘퇴직 후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라고 물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노후에 돈, 건강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가족의 응원이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던 응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신뢰와 애정을 쌓아두는 것이죠. 가족의 반대를 무릅써야 한다면 어떤 일을 하든 온전히 행복할 수 없을 테니까요.”

덧붙여 이영철 작가는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 말한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해라.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다. 인간관계에 있어 특히 그러하다. 모든 모임에 참여하며 체력을 낭비하지 말라. 대신 내게 유익하고, 내가 좋아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둘째,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고, 그중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 분야의 숙련도를 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그는 사람들에게 “눈앞의 이익을 좇아 노년을 계획하지 말라”라고 말한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셋째, 잊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퇴직 후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고독이다. 이것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만들게 한다. 고독은 노후에 누구나 만나게 되는 친구다. 고독을 즐겁게 받아들이되 대신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이 좋다. 걷는 것 또한 고독을 받아들이는 데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진리는 노년에도 변함없이 적용된다.

프랑스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그의 책 <에밀>에서 이렇게 말한다. “도착하기만을 원한다면 달려가면 된다. 그러나 여행을 하고 싶을 때는 걸어서 가야 한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줄곧 도착점을 향해 달리지만 했다. 그러다 어느 날 퇴직이라는 도착점에서 우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한다. 고민할 것 없다. 이제부터 천천히 걸으며 생각하면 된다. 걷다 보면 분명 무언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진정한 자유를 꿈꾸는 여행자들의 천국



호주 여행은 문화유적지들이 즐비한 유럽이나 남태평양의 유명 휴양지에 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 호주는 나라의 역사는 그리 깊지 않지만 오래된 자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서 오늘날 세계 각국 여행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오염되지 않은 야생 상태의 자연미가 호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다. 특히 서호주의 변화무쌍한 자연미는 여행자들의 본능을 더욱 자극한다. 단 한 번이라도 서호주의 묘한 매력에 빠져 본 사람은 안다. 바로 그곳에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글_사진. 송일봉(여행작가)

*송일봉 작가는 (사)한국여행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해외여행전문지 '코리안 트레블러' 편집부장과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캄' 편집장을 지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기획위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국립공원 대표경관 100경' 선정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문화답사 프로그램 '송일봉의 감성여행'을 2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KBS, MBC, 교통방송 등에 출연하고 있다.

서호주 여행의 베이스캠프, 퍼스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워낙 땅이 넓어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서호주의 주도인 퍼스(Perth)의 경우 9월부터 11월까지의 봄으로 분류되고, 12월부터 2월까지의 여름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가 겨울로 접어들 무렵인 11월의 호주는 평균 기온이 20~25℃로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들을 보기 위해 많은 여행자가 일부러 이 시기에 퍼스를 찾아오기도 한다.

퍼스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여행지이지만 서호주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여행자들의 베이스캠프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아침이면 팀을 이뤄 잔뜩 기대에 찬 얼굴로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해 질 무렵이면 캠핑카 또는 4륜구동차를 타고 삼삼오오 퍼스 시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A U S T R A L I A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하는 퍼스는 호주에서 가장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다. 호주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주민들 대부분이 영국에서 건너온 자유이민자들로 이뤄져 있는 까닭이다. 호주의 남서쪽 코트머리에 위치한 퍼스는 생각처럼 그리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여행지는 아니다. 시드니에서 퍼스까지는 기차로 3박 4일, 비행기로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 대륙횡단 열차인 인디언퍼시픽(시드니-퍼스)으로는 무려 3박 4일(65시간)이나 소요된다. 이 기차를 타고 대륙의 남서부에 있는 놀레버 평원을 지날 때는 약 480km를 직선으로 달리기도 한다.

퍼스 근처의 아름다운 여행지, 로트네스트 섬

퍼스에서 여행자들은 물론 현지 사람들도 즐겨 찾는 명소는 킹스 파크다. 이곳에서는 스완 강을 따라 깔끔하게 펼쳐진 퍼스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울창한 숲을 그대로 자연공원으로 꾸며놓은 킹스 파크는 퍼스 시민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휴식공간이다. 특히 매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여러 종류의 야생화들이 피어나 산책하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를 상징하는 바오밥나무도 볼 수 있다.

한적한 호수공원인 레이크 몽저 역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 좋은 명소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호수에서는 퍼스의 상징인 '블랙 스완'을 만날 수 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는 '스완 강'은 퍼스 시민들이 해 질 무렵에 자주 찾는 휴식처다. 강변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하이킹을 즐기는 모습, 노부부가 산책을 따라 정답게 걷는 모습, 잔디밭에 편하게 누워 책을 읽는 모습 등이 모두 평화롭게만 보이는 풍경들이다.

킹스 파크에서 바라본 '스완 강'



퍼스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스완벨 타워'

남불국립공원의 '피너클스 사막'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프리맨틀 마켓'

퍼스 중심가의 스완 강 둔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악기'라 불리는 '스완벨 타워'가 높이 솟아 있다. 모두 18개의 종이 있는 탑이다. 매일 정오에는 16개(2개는 예비용)의 종이 아름다운 음악 연주를 한다. 1988년에 세워진 스완벨 타워는 퍼스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퍼스 중심가 남서쪽의 스완 강 하구에는 고풍스러운 도시 프리맨틀이 있다. 이곳에는 길 양쪽이 모두 노천카페로 이뤄진 일명 '카푸치노 거리'가 있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재래시장인 프리맨틀 마켓이 있다. 프리맨틀 마켓은 공예품, 악기, 가구, 액세서리, 음반, 서적 등을 파는 시장으로 유명하지만 고풍스러운 외관이 더 인상적인 명소다.

프리맨틀은 퍼스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섬인 로트네스트 섬으로 향하는 출발지이기도 하다. 프리맨틀 항에서 페리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로트네스트 섬은 퍼스에서 만나질 또는 하루 일정으로 다녀 오기에 좋은 여행지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일광욕을 하거나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을 즐길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섬 곳곳을 둘러볼 수도 있다.

세계적인 이색 지대, 남붕국립공원

퍼스를 기점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많은 명소 가운데 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남붕국립공원(Nambung National Park)이다. 호주 곳곳에는 카카두국립공원(노던 테리토리), 플린더스케이시국립공원(남호주), 세인트클레어국립공원(태즈매니아) 등과 같은 많은 공원이 있다. 비록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남붕국립공원 역시 호주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자연공원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퍼스에서 북쪽으로 260km쯤 떨어져 있는 남붕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너클스 사막(Pinnacles Desert)이 있는 명소다. 공원은 크게 피너클스가 있는 사막 지역, 새하얀 모래밭으로 특징되는 바닷가 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여행자들이 큰 기대감을 안고 찾아오는 피너클스 사막은 크고 작은 돌기둥들이 여기저기 솟아있는 이색지대를 가리킨다. 드넓은 사막에 마치 묘석처럼 불쑥 불쑥 솟아 있는 이 돌기둥들은 먼 옛날 원시림이 화석으로 변한 것이다. 손가락만큼 작은 것부터 높이 4m에 이르는 것까지 무려 1만 5,000개의 화석이 기기묘묘한 자태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언제부터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수만 년을 버텼다고 하니 그 우직함에 절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다. 이 광활한 화석군운 네덜란드의 한 탐험가에 의해 1658년 처음 발견됐다.

피너클스 사막의 조금 높은 바위(전망대)에 올라서면 정말 멋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황톳빛 모래와 새하얀 모래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황톳빛 모래는 내륙에서, 새



하얀 모래는 바다에서 날아온 모래들이다. 피너클스 사막 근처의 란셀린에 있는 화이트 비치는 밀가루처럼 새하얀 모래로 이뤄진 백사장이다. 이 역시 자연이 빚은 훌륭한 예술품이다. 화이트 비치의 모래언덕에서는 특별한 체험이라 할 수 있는 '샌드 보딩'을 즐길 수 있다.

퍼스에서 출발한 여행자들은 그들이 타고 온 4륜구동차를 이용해 남붕국립공원의 피너클스 사막과 화이트 비치를 둘러보게 된다. 오로지 기이하고 독특한 자연현상으로만 이뤄진 국립공원인 만큼 이곳에는 여행자들이 기대할 만한 편의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저 조용히 다가가 수만 년의 세월을 통해 만들어진 자연의 걸작품에 잠시 경의를 표하고 돌아서면 그뿐이다. 점심도 미리 준비해간 도시락이나 샌드위치로 대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작은 불편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불평을 쏟아내는 순간 아마도 그 사람은 자연의 위대한 걸작품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테니까. 참고로 피너클스 사막에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비포장도로가 있다. 작은 돌들을 경계선 삼아 조성한 소박한 길이 매우 인상적이다.

서호주 여행지 한 눈에 보기



샌드 보딩의 명소인 란셀린의 '화이트 비치'



세계적인 여행잡지에 자주 등장하는 '내추럴 윈도우'



자연이 만든 걸작품, '내추럴 윈도우'

남붕국립공원에서 자동차를 타고 북쪽으로 2시간쯤 더 가면 '칼바리'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나타난다. 퍼스에서는 577km 떨어진 곳이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곳인 칼바리는 윈드서핑과 제트스키, 바다낚시 등을 즐기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양지다. 게다가 마을 전체가 바다와 울창한 숲, 거대한 협곡에 둘러싸여 있어 마치 '서호주의 보석'과도 같은 한적한 마을이다. 마을 외곽에는 꽤 큰 규모의 캐러밴 파크도 있다. 이 캐러밴 파크는 취향에 따라 계곡이나 바다로 여행을 떠났던 여행자들이 숙식을 위해 매일 저녁 일시적으로 모이는 장소다. 저녁식사를 마친 후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여행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여행과 관련된 저마다의 경험을 토대로 정보를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이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여행지로 뿔뿔이 흩어진다.

칼바리 바닷가의 마지막 언덕배기에는 조그만 전쟁기념탑이 하나 세워져 있다. 기념탑의 한쪽 모서리에 새겨져 있는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당신과 나를 위해"라는 글귀를 통해서도 호주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어렵잖이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기념탑에는 "한국전 참전, 1950~1953, 278명 사망"이라는 내용도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끈다.

칼바리 중심지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칼바리국립공원은 밀림 한가운데 우뚝 솟은 또 하나의 거대한 자연조각품이다.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빚어낸 가파른 절벽과 협곡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절벽 아래에는 태고의 신비가 숨 쉬고 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일 만큼 전망도 좋다. 칼바리 국립공원에서도 이른바 '제트 밴드'라 불리는 거대한 협곡이 최고의 장관을 자랑한다. 협곡 곳곳에서는 거대한 바위에 매달려 암벽 등반을 즐기는 클라이머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 일반 여행자들도 소정의 강습을 받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가벼운 암벽등반을 즐길 수 있다. 칼바리국립공원 최고의 자연예술품은 '내추럴 윈도우'라 불리는 바위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거센 비바람에 바위 한가운데가 마치 창문처럼 뚫려 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서호주에 있는 수많은 명소 가운데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몽키미아다. 퍼스에서 북쪽으로 840km쯤 떨어져 있는 몽키미아는 야생 돌고래들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나타나는 독특한 명소다. 매일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몽키미아의 돌핀 비치 근처에서 밤을 보낸 여행자들이 바닷가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먼바다에서 찾아오는 야생 돌고래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몽키미아 바닷가에 야생 돌고래들이 규칙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부터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야생 돌고래들이 대를 이어가며 몽키미아 바닷가를 찾아오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유명해졌다. 야생 돌고래들은 한 번에 보통 5~6마리씩 나타나는데 잠시 바닷가에 머물다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K)



‘칼바리국립공원’에서 암벽체험(하강)을 하는 모습

TIP

알아두면 편한 서호주 여행 정보

-  **교통편** 인천공항에서 홍콩을 경유해 퍼스까지 가는 캐세이퍼시픽항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인천에서 홍콩까지는 약 4시간, 홍콩에서 퍼스까지는 약 7시간 40분이 소요된다. 퍼스에서는 현지 여행사의 1일, 4일, 7일, 11일짜리 여행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  **시차** 퍼스를 포함한 서호주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다. 하지만 서머타임(10~3월)이 적용되는 시기에는 시차가 없다.
-  **주의사항** 호주의 바다는 파도가 심하고 유속이 빠른 편이다. 그리고 수면과 물속의 수온이 차이가 크게 나므로 심장이 약한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바닷가에 걸려 있는 초록색(수영 가능), 노란색(수영 주의), 빨간색(수영 금지) 깃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야생 돌고래와 만날 수 있는 '몽키미아' 바닷가





잔잔한 낭만과
책 향기 넘실대는

그곳에 우리가 있었네



김기화 회원과 남편 서종수 씨, 아들 서정국 회원과 며느리 이은주 회원이 함께한 통영 '문학 여행기'

독서 모임에도 여러 스타일이 있겠지만 이 가족 독서 모임은 좀 더 특별하다. 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도 걱정할 것이 없다. '도란도란 책 생각 나누기'에선 경청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니까.

글. 김유리 사진. 권대홍





독서 토론으로 하나 된 가족

새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른 삶을 살았기에 더 이해해야 하고, 보듬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함은 어찌면 당연한 얘기다. 여기, 책을 통해 소통하고 대화하는 가족이 있다. 김기화 전 영암중학교 교장은 <The-K 매거진>에 가족 독서 토론을 제안한 며느리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 사연을 보내왔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부모를 몹시 어려워하는데 먼저 독서 토론을 하자며 다가와 준 그 마음이 정말 고맙습니다.” 독서 예찬론자인 김기화 전 교장의 첫 여행지는 이번 여행 주제에 안성맞춤인 박경리 기념관이었다. 이곳은 소설 ‘토지’의 작가이자 한국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통영 출신의 박경리 선생 작품을 모아놓아 그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뜻깊은 장소다. 가족들은 저마다 박경리 선생의 작품을 음미하며 차분하게 기념관을 돌아봤다.

“독서 토론을 하다 보면 결국 자기의 마음 깊은 부분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현재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상태를 알 수 있죠. 그럴 때 나머지 사람은 들어만 줘요. 공감에 중요하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거든요. 강요 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김기화 전 교장이 독서 토론의 장점을 이야기했다. 고른 책의 제목, 밑줄 친 구절만 봐도 말로는 다 하지 못하는 서로의 마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었다. 며느리 이은주 교사는 독서 토론을 제안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결혼하고 TV를 사지 않았어요. 대화를 많이 하고 책을 보기 위함이었는데 계기가 없으니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 무렵 어머니가 독서 토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 떠올라서 가족끼리 하면 어떨까 싶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는데 네 번 정도 진행해보니 책을 집중해서 잘 읽게 되고, 어머니 말씀처럼 가족의 마음을 잘 알게 되더라고요.” 김기화 전 교장은 독서 토론을 하지 않았다면 어느 시어머니처럼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며 지냈을 거 같다고 했다. “독서 토론은 결국 책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교사의 사명, 그 무게에 관하여

기념관 관람을 마친 가족들의 다음 코스는 한려수도의 비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통영 케이블카 정상이었다.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한산대첩의 현장과 통영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탁 트인 전망을 보고 있자니 바쁜 일상의 피로가 단번에 날아가는 듯하다. 기분 좋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지난 8월에 40년의 교사 생활을 끝냈어요.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축하를 받으며 누구보다 행복한 은퇴를 할 수 있었어요. 퇴임할 때 함께 독서 토론을 하던 학부모들이 그간의 자료를 엮어서 앨범



을 만들어 주었는데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또 아들과 며느리는 퇴임에 맞춰 제 주변 지인과 가족들에게 연락해 동영상을 만들어 깜짝 선물해 주었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열심히 달려온 제 인생에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요.” 김기화 전 교장이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주말보다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학교를 너무 좋아해서 월요일이 되면 누구보다 힘이 솟는 분이셨죠.” 아들 서정국 교사가 웃으며 이야기했다.

“전 40대 중반까지 승진에 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에게 수학을 어떻게 재밌게 느끼게 할지 수업 개선에 대한 연구만 했는데, 어느 날 장학사님 추천으로 선생님 4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수업 모형을 시연하게 됐어요. 신기하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수업혁신단에 영입되고, 수업을 공개하다 보니 승진 점수가 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모은 점수는 아니었는데 생각 없이 여기저기 뛰다 보니 어느 순간 저절로 모였어요. 그래서 40대 후반에 생각을 했죠. 승진되어도 좋고 안 돼도 난 수학 선생님이로 행복하다고요. 수업 하나를 잘하겠다는 목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다른 삶을 열어주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늘 좋은 분들을 만나 교장까지 하게 되었죠.”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김기화 전 교장의 눈빛은 유난히 반짝였다. 교사로서의 삶이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의 표정엔 나이를 초월한 순수가 어려 있었다. 남편 서중수 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아내를 보며 직업에 대한 만족도

가 커 보여서 좋았습니다. 생계나 가족 부양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아내는 늘 학생들을 가르치며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살았죠.” 가르치는 일은 직업이자, 취미이자, 특기라고 말한 김기화 전 교장의 이야기가 단박에 이해되는 말이었다.

가족의 행복은 미리 보는 천국

통영의 해안로를 산책한 가족의 오늘 저녁 메뉴는 통영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다찌집’이었다. 신선한 해산물과 다채로운 음식이 끊임없이 나오는 식당에서 가족들은 건배하며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야기했다. “어머니를 보며 어릴 때부터 교직을 꿈꿨어요. 닳고 싶은 멘토랄까요? 밖에서 일하고 오면 힘들 법도 한데 어머니 집안에서도 흐트러짐을 보인 적이 없으세요. 완벽주의자처럼 모든 걸 묵묵히 해내셨죠. 저는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늘 닳고 싶다고 생각해요”라며 서정국 씨가 전했다.

아들 부부를 바라보는 김기화 전 교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가족의 행복은 미리 보는 천국이라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았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니 행복하네요.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반려자를 만나 더욱 고맙고요”

교장으로 퇴임한 김기화 전 교장의 시아버지부터 아들과 며느리까지 3대에 걸쳐 교사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온 가족은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동료이자 애뜻한 가족임이 분명했다.

김기화 전 교장은 “집안에 교사가 많다 보니 시어머니는 학교 둘



아가는 사정을 흰히 꿰뚫고 계셨어요.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너무나 잘 알기에 며느리 힘들다고 일도 안 시키셨죠. 며느리 사랑이 넘치셨는데, 저도 우리 시어머니를 본받고 싶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집안 분위기가 더욱 선명한 유채색이 되었는데 이게 다 은주 덕분인 거 같아요.”

추억 통장에 행복을 저금하다

이튿날 아침, 식사를 마친 김기화 전 교장 부부는 통영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통영국제음악당을 산책했다. 예향의 도시답게 멋스럽게 지어진 음악당과 바다가 멋스럽게 어우러진 공간이었다.

몇 년 전 먼저 은퇴한 남편 서종수 씨는 “아내가 퇴임하니 평일에 다닐 수 있어 좋네요. 교사들은 방학 때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어디를 가도 늘 성수기에 다녀야 했어요. 날 좋은 봄·가을 여행은 엄두도 못 냈죠.” 이에 김기화 전 교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트렸다.

“은퇴하면 느긋할 줄 알았는데 전 여전히 바빠요. 전에는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걸 줄이고 학교 일에 매진했는데, 지금은 그때 하고 싶었던 걸 하느라 일주일이 금방이에요.”

호텔을 나선 가족들은 통영에서 가장 핫하다는 ‘동피랑’ 벽화마을을 찾았다. 강구안 언덕배기에 있는 이 마을은 주택가 곳곳 담벼락에 다양하고 멋진 벽화가 장식된 마을로 2년마다 공모전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다. 가족들은 이곳에서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듯 포즈를 취하며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행복을 추억 통장에 저금한 기분이에요.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와 함께 가족여행을 하는 건 처음이라 특별히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이 여행이 앞으로 우리 가족 독서 토론에 좋은 동력이 될 테고요.”

가족들은 여행의 마지막 코스인 나전칠기 공방으로 향했다. 나전이란 소리를 가리키는 ‘나’와 도구로 꾸민다는 ‘전’의 합성어로 ‘자개’라고도 하며, 기물에 옷칠하여 밑바탕을 처리한 위에 자개를 올려 만드는 칠기를 나전칠기라 한다. 가족들은 자개 껍받침 만들기 체험에 돌입했다. 밑그림을 그리고, 자개를 붙이는 과정에도 각자의 개성이 한껏 드러났다.

김기화 전 교장과 이은주 교사는 침착하게 자개를 붙여 나간 반면, 남자들은 투박한 손놀림 때문인지 좀체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는 아들 서정국 교사에게 김기화 전 교장이 이야기했다.

“잘한다’가 아니라 ‘한다’에 집중하면 돼. 잘한다는 자꾸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고, ‘한다’가 반복되어야 ‘잘한다’가 돼.” 서로 격려하며 완성된 나전칠기 껍받침은 작은 조각이 모여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났다. 이들의 추억도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차곡차곡 쌓인 가족의 행복을 통해... (K)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 김기화 (전 영암중학교 교장)

40년간 교직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큰 선물을 주었네요. 여행은 장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편견을 바꾸는 시간이라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박 2일을 함께하다 보니 가족과의 유대감도 더 깊어졌고요. 행복을 넘어 환상적인 시간을 보낸 여행이었습니다.

----- 남편 서중수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은 것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가정을 이룬 아들과 여행을 하니 든든하기도 하고 대견한 마음이 들더군요. 며느리 보면 좋다던데, 정말 은주가 집에 들어오고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니 그 어느 때보다 기억에 남겠네요.

----- 아들 서정국 (울산고등학교 체육교사)

<아름다운 동행>에 우리가족이 나온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전국의 선생님들이 볼 걸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죠. 좋은 기회가 되어 온 만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간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잘 꺼내지 못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며느리 이은주 (천상고등학교 특수교사)

이번 여행을 통해 부모님과 좀 더 가까워졌고, 아버님 어머님이 소소한 것에도 아이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행복의 기쁨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라도 가족의 행복 빈도를 늘려갈 수 있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될게요.

가 족 의 발 자 취 를 따 라 가 다



박경리기념관

박경리 선생의 고향으로 선생문학에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한 고향 통영을 소개함으로써 선생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건립된 기념관이다.

☎ 055-650-2541~3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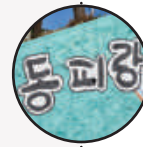


통영 케이블카

통영 미륵산에 설치된 통영 케이블카는 그 길이가 1975m로 국내 일반관광객용 케이블카 중에서는 가장 길며, 아름다운 통영항과 한려수도의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 1544-3303

📍 경남 통영시 발개로 205



동피랑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정량동, 태평동, 중앙동 일대의 언덕 위 마을로, ‘동피랑’이란 이름은 ‘동쪽 벼랑’이라는 뜻이다. 마을 담벼락마다 그려진 형형색색의 벽화가 눈길을 끈다.

☎ 055-650-0580

📍 경남 통영시 동호동 동피랑로



나전칠기공방 ‘지향’

옷칠과 자개로 생활소품을 만드는 통영 나전칠기공방. 얇게 간 조개껍데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오려내어 기물의 표면에 감입시켜 꾸미는 나전칠기체험이 가능하다.

☎ 010-8581-8193

📍 경남 통영시 서호시장길 55
서호아파트상가 124호



역사 박물관 가는 길

베트남 호찌민 —  — 한 달 살기, 그 4주간의 기록

“매력적인 베트남, 한 달 살기 어때요?”



H o C h i M i n h

해외 한 달 살기에 대한 열풍이 고조되던 지난 1월, 직장에서 한 달이라는 귀한 휴가를 얻었다. 평소 외국에서의 한 달 살기 마음이 있었지만 실행하기 힘들었기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여행은 살아보는 것이기에, 아이 둘을 데리고 베트남 호찌민행에 몸을 싣었다. 저렴한 생활 물가, 편리한 교통 인프라, 아름다운 휴양지에 예쁜 카페들이 즐비한 베트남! 그 매력에 빠져 진정한 쉼을 맛볼 수 있는 한 달 살기가 시작됐다.

글_사진 최은경(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짬짬이 육아> 저자)



오토바이가 가득한 베트남 시내



교통 — 택시 탈 땐 “비나선, 마일린!”

베트남 공항 택시의 바가지요금은 유명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베트남 택시는 ‘마일린’과 ‘비나선’, 이것만 기억하자. 공항을 막 나오면 호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볍게 무시하고 누가 “어디 가냐?”라고 묻거든 “비나선, 마일린”을 외치자.

해당 택시회사 직원들이 손짓으로 택시 정거장을 안내해준다. 단, 택시 외관이 비슷해 헷갈리는 사실 택시가 있으니 조심하자. 그리고 다른 추천 교통수단은 단연코 ‘그랩’이다. 우리나라 카카오택시와 비슷하다. 미리 그랩 앱을 깔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하면 예상 요금도 알 수 있어 요금 사기를 당할 일이 없다. 택시 기사와 말 한마디 안 해도 편안해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이동 중에도 그랩을 켜면 실시간으로 내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그랩이 택시비보다 싸다는 말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교통 상황이나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다(더 비쌀 때도 있다). 다만 간혹 잔돈이 없다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니 요금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물론 버스도 있다. 1군에서 7군(호찌민시 행정구역을 뜻함)까지 가는데 요금은 5000동. 한국 돈으로 250원이다. 택시 요금은 20만 동(한국 돈으로 만원) 내외라 편차가 심하니 시간 여유가 많다면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택시보다 정신없긴 하지만 시내 곳곳을 누비며 베트남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볼 수 있어 소소한 재미가 있다. 베트남의 생활수준이 우리나라 1960~70년대라고 하지만, 서비스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다. 구글 맵으로 인근 버스 정거장 조회 및 버스 정차 시간 확인도 가능하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걷기가 있는데, 걷는 사람은 드물다. 현지인들은 대부분 오토바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인도 사정이 아주 좋지 않으니, 아이들과 보행 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숙소 — 안전한 환경과 여가 활용 프로그램 고려

숙소는 에어비앤비를 선택했다. 호텔은 아무리 싸도 한 달이면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게다가 취사도 안 된다. 특히 싼 호텔은 다 이유(벌레, 보안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한 달 살기 숙소로는 적합하지 않다. 여유로운 한 달 살기를 위해 취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거나 좋은 호텔과 리조트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2군이나 7군에 있는 아파트 에어비앤비를 추천한다.

호찌민의 다른 곳보다 주변 환경이 깔끔하고 안전하다. 취사가 가능하고 특히 수영장 딸린 아파트가 많아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데다, 한 달 속성으로 아이들과 수영 배우기에도 좋다.

한국보다 저렴해서 1대1 레슨도 부담이 없다. 장담하건데 한 달 살기에서 가장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다. 열세 살, 아홉 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기에 워킹맘인 나의 한 달 살기는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마지막으로 숙소 팁 하나 더하자면, 아파트 헬스장에서는 아이들 발레나 요가, 방송 댄스 같은 프로그램(영어 사용)을 운영하니 관심 있으면 알아보자.

7군에 있는 한 달 살기 숙소



㉔ 물가 ——— 밥해 먹을 걱정 없는 저렴한 생활 물가

베트남 한 달 살기의 최대 강점은 싼 물가다. 베트남 현지 물가는 우리나라의 약 3분의 1 정도. 뭐든 싼 나라지만 아이들과 함께하
는 한 달 살기라면 조금 다를 수 있다. 숙소 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무조건 '싸게만'을 외칠 수 없다는 말이다. 현지인들이 주식처럼 먹는 길거리 음식은 우리 돈으로 천원 내외지만 먹기는 좀 힘들다. 생각보다 비위생적이므로 식당에서 먹을 것을 추천한다. 쌀국수, 분짜, 반미, 반콧, 반세오 등 베트남 음식을 한국에서의 반 가격(혹은 그보다 싸게)으로 식당에서 싣먹을 수 있다.

사실, 베트남에 오기 전에 가장 큰 걱정은 식중독, 장염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였다. 물이 더러운데 정수기 쓰는 데가 거의 없고(물은 생수를 사 먹어야 한다), 아직 냉장고를 쓰는 곳도 드물어서다. 생활하면서 이런 점을 특히 조심해서 그랬는지 아픈 데 없이 한 달을 보냈다. 아파도 2군이나, 7군 등 한인이 많이 사는 곳에는 한인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도 많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베트남은 용과, 용안, 망고스틴 등 한국에서 맛보기 힘든 열대과일도 싸게 먹어볼 수 있으니 전부 도전해보자.

특히 베트남은 진정한 '배달의 민족'이다. 온갖 음식부터 반찬, 과일, 해산물, 커피 한 잔, 슈퍼에 있는 생수 하나까지 배달이 가능하다(심지어 배달료도 없다). 인건비가 저렴해서인데, 베트남에서 '밥해 먹고' 살 걱정은 넣어두자. 다만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2군, 7군의 식비는 베트남 현지 물가와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베트남 음식을 제외하고는 한국 물가에서 조금 싼 정도다. 그리고 진정한 쌀국수 맛집은 공항에 있다. 떠나기 직전, 남은 베트남 돈을 싣싣 모아 쌀국수 한 그릇 먹고 가길 추천한다.



01



02

01 베트남식 샌드위치 '반미'에 들어갈 재료를 고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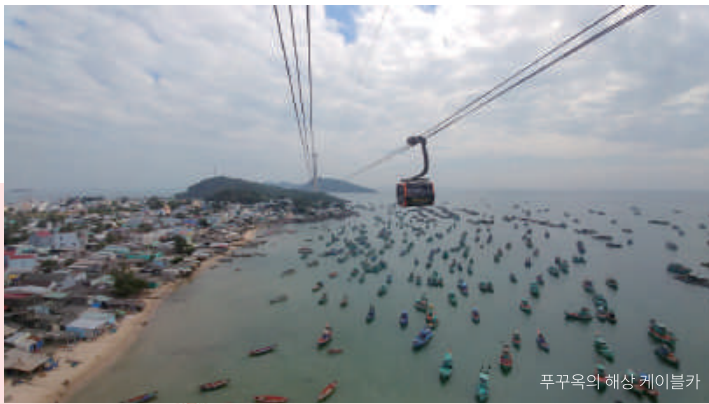
02 1군 시내 식당에서 쌀국수를 먹다.



메콩강 투어를 하는 전통배 '투앵더'를 타다.



숙소에서 여유로운 커피 타임



푸꾸옥의 해상 케이블카

휴가 —— 다양한 카페, 아름다운 휴양지에서의 힐링

한 달 살기는 아이들과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지만 엄마인 내 시간도 포기할 수 없어 카페 투어를 많이 했다. 베트남은 맛있는 커피로도 유명한데 이 역시 저렴하다. 베트남 연유커피 ‘쓰어다’부터, 쿵다방의 코코넛커피나 베트남 프랜차이즈 카페 ‘폭롱’의 밀크티, 7군 ‘wimi’ 카페의 라떼, 1군 ‘workshop cafe’의 커피 등 맛있는 커피가 많다. 또 ‘엄마표 반짝 투어’를 계획하여 아이들과 관광을 했다. 주로 1군 시내 관광이었는데 방송에 나온 곳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쏠쏠했다. 여행 다닐 때는 ‘지금 아니면 또 언제’라는 마음으로 무리하기보다 컨디션을 고려하자. 아이들과 함께 꼭 갈 가볼 만한 곳은 전쟁박물관, 역사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전시에 비해 시설은 낙후한 편이니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가자. 또한 리무진을 대여해서 이동하는 메콩강 투어도 좋다. ‘여행이 교육이다’라는 말은 괜한 소리가 아니다. 마침 1월은 베트남의 설날인 ‘땃(Tet)’ 기간이라 자연스레 베트남 명절 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특히 볼거리

가 많아 일정을 맞추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다만, 땃 기간에는 관광지나 상점이 거의 문을 닫으므로 자칫 정말 할 일이 없어지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자.

귀국 일주일 전, 휴가를 내고 온 남편과 핫한 여행지 ‘푸꾸옥’에 갔다. 아파트 생활도 좋았지만 역시 휴양지가 진리다. 호찌민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1시간여 정도면 갈 수 있는 푸꾸옥은 제주도과 비슷한 느낌이다. 베트남 최대 리조트 빈펄, 가성비갑 리조트 노보텔이 단연 인기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선셋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특히 리조트 해변에서 패들보드 타는 재미도 엄청나다. 게다가 이곳에는 세계 최장 길이 7.9km를 자랑하는 케이블카도 있다. 장장 20분을 타고 혼돈섬으로 가는데 기막힌 절경을 자랑한다. 셔틀버스를 타고 쯔엉동 야시장에서 들어간 식당은 ‘크랩하우스’. 베트남 물가를 생각하면 비싸지만, 인생 맛집이었다. 아이들이 지금도 생각난다는 ‘게’ 맛, 독자 여러분도 베트남에서 한번 느꼈으면 한다. ㉔

푸꾸옥 노보텔 인근 해변 풍경



어썸, 성대마저

목 건강관리법 건강한 그대!

방심했던 탓일까. 더위를 물리는 찬 기운의 기척을 칼칼해진 목이 먼저 알아챈다. 급히 머물러라도 돌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니 비로소 가을이 왔구나 싶다. 매년 맞이하는 계절, 매년 반복되는 다짐. 목 건강에 해대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글. 편집실



촉촉하게, 깨끗하게, 더 쾌적하게

계절이 바뀌었다. 수시로 찬바람을 쐬고 얼음물을 들이켜도 끄떡 없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깊어진 것. 온도도, 습도도, 바람의 세기도 달라진 계절에 적응하느라 우리 몸은 지금 한창 분주하다. 자칫 소홀했다가는 며칠 앓아눕기 십상, 가을은 건강관리에 조금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나 목은 바깥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터라 내·외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데, 목을 자주 쓰는 사람이라면 생활습관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충분한 수분 공급이다. 습도가 낮은 계절인 만큼 평소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셔 기관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성대 점막이 마를 경우 바이러스에 저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내 습도를 40~50%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습도가 너무 높아도 집먼지진드기 번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또한 구강 건강과 목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음식을 먹은 후 양치질을 꼼꼼히 하면 도움이 된다. 만약 매년 양치질하는 게 어렵다면 가글만이라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소소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목 건강을 위한 꿀팁.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식약처가 인증한 황사방지용 마스크인지, KF(Korea Filter) 80, 94 표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TIP

목 건강에 좋은 음식

- **모과** _ 갈슘, 칼륨, 철분 등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기관지염에 효과적이다. 목이 자주 아프거나 감기가 잦은 사람에게 제격. 꿀에 절여 청으로 만들어 두면 두 고두고 차로 만들어 마시기 편하다.
- **도라지** _ 씹새래한 맛을 내는 성분은 사포닌이다.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만다는 건 물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 도라지 특유의 쓴맛을 즐기지 않는다면, 레몬과 함께 달여 차로 마시면 된다.
- **생강** _ 항염증 성분이 있어 목이 아플 때 효과적이며, 몸에 열을 나게 해 혈액순환을 돕기도 한다. 생강만 달여 먹어도 좋지만 대추, 레몬, 꿀 등과 함께 달이거나 청을 만들면 마시기 훨씬 수월하다.
- **무화과** _ 그냥 먹어도 맛있는 무화과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해독작용을 하는 성분까지 포함한 기특한 과일이다. 생과 그대로도 좋지만 달인 후 꿀을 섞어 마시면 목의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나이 든 성대도 회춘할 수 있다면

신체의 건강 수준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는다. 목 건강도 마찬가지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화를 늦출 수도, 앞당길 수도 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일상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야 하는 건 성대 자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다. 보통 40대에 접어들면 성대도 서서히 늙기 시작한다. 팽팽하던 피부에 주름이 지고 탄탄하던 근육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대 근육도 탄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중년을 넘어서면서 서서히 목소리가 달라지는 건 그런 이유. 남성의 경우 성대 근육이 약해지고 성대가 가늘어져 목소리도 가늘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소리를 낼 때 성대가 예전처럼 잘 맞물리지 않아 쉰 듯한 목소리가 나기도 한다. 반대로 여성은 목소리가 굵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성대에 부종이 생겨 두꺼워지기 때문인데, 폐경 후 여성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변화는 더욱 급격해진다. 다행히 이러한 성대의 노화는 성대 근육에 탄력을 주는 운동, 생활 습관 교정 등으로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



자극은 금물, 그렇다고 너무 아껴도 문제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심지어 숨을 쉬는 순간에도 성대에는 자극이 가해진다. 그렇다면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 건강을 지키는 솔루션이 될 터. 성대를 건조하게 하는 술과 담배는 멀리하고, 일종의 윤활제 역할을 하는 물은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다. 늦은 시간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 역시 피해야 할 습관. 역류한 위산이 성대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또한 숨은 코로 쉬어야 한다. 입으로 숨을 쉴 경우 성대가 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큰 데다, 점점 건조해져 작은 자극에도 손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목에 이물질감이 느껴질 때는 헛기침을 하기보다는 물을 마시거나 침을 삼키는 것이 성대에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목을 아끼는 것만이 왕도는 아니다. 너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근육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노래를 흥얼거리는 등 가벼운 자극을 꾸준히 주는 편이 낫다. 성대 운동법도 있다. 들숨 상태에서 혀를 위로 구부린 채 ‘호르르르’ 소리를 내며 숨을 세게 내쉬고, 이어서 ‘으’라는 목소리를 섞어 같은 방법으로 바람을 불어내는 식. 이 운동을 하루 5분씩 매일 반복하면 성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여느 신체 건강법과 마찬가지로 목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꾸준한 노력이 핵심이다. 물론 이 자체가 스트레스와 피곤으로 느껴져서는 곤란하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는 목 건강에도 백해무익하니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실천할 것을 권한다. 일단, 지금 당장 물 한 잔부터 마시고 시작해보자. ㉔

‘임시정부 100주년’ 역사탐방

대한민국을 지킨 800km, 100년 전 그 길을 걷다





남북호에서 함께한 기념사진

매현기념관의 전경



임시정부 100주년 역사탐방 로드



땅 위에서 시작되지 않은 역사는 없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역사 또한 없다. 매일 아침 당연하게 맞이하는 대한민국 역시 어딘가의, 누군가의 투쟁이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2019년 오늘, 그날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 글. 박혜인 사진. 김도형

1일차

100년 전 오늘을 찾아 떠나다

지난 10월 14일 오전 7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선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3박 4일간 펼쳐질 ‘임시정부 100주년’ 역사탐방의 시작을 알리는 참가 학생들의 목소리였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오마이뉴스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올해 총 6회의 ‘임시정부 100주년’ 역사탐방을 마련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21일까지 공제회 회원 598명, 7개 학교의 학생과 인솔교사 등 단체 265명이 응모했고, 이중 1회차 36명, 2회차 35명이 각각 선정되어 역사탐방을 다녀왔다.

어느덧 3회차인 이번 탐방에는 경상남도 거제시의 외포중학교 야구부 15명과 교사 2명, 서울시 구로구 천왕중학교 누리단 14명과 교사 3명, 그리고 탐방단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관 1명과 간호사 1명까지 총 36명이 참가했다. 탐방단은 ‘상하이’에서 출발해 ‘자싱’, ‘항저우’를 거쳐 ‘난징’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동했던 전체 경로의 절반 정도다. 역사로는 1919년부터 1937년까지, 거리로는 800km에 달한다. 이 여정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서는 <임정로드 4000km>의 저자이기도 한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가 해설가 역할을 맡았다.

상하이에 도착한 첫째 날, 탐방단은 제일 먼저 윤봉길 의사의 폭탄투척지인 홍커우공원으로 향했다. 홍커우공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데 중요한 장소다. 일본은 1932년 4월 23일에 천황탄생일을 위한 경축행사를 열었다. 스물다섯의 윤봉길은 도시락형 폭탄과 물통형 폭탄을 준비했고, 그가 투척한 물통형 폭탄이 터지면서 시라가와 요시노리 사령관이 즉사했다. 이후 일본과 중국은 대한민국의 항일투쟁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 홍커우공원은 중국 작가인 루쉰의 묘가 있



01 홍커우공원에 마련된 윤봉길 의사 생애사적기념관 전시실 02 윤봉길 의사의 생애를 경청하는 탐방단 03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04 송경령능원에서 묵념을 하기 위해 모인 탐방단

거오면서 현재 루쉰공원이라 불린다. 안쪽에 윤봉길 의사의 생애 사적 전시관인 매헌기념관과 의거 기념비가 세워져 있지만 실제 의거지는 기념비가 있는 곳이 아니라 루쉰의 동상이 서 있는 들판 근처로 추정된다. 탐방단의 다음 목적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식탁과 집무실, 침실이 가지런히 복원된 3층짜리 기념관은 도로변에 있어 자칫 지나치기 쉽지만, 내부는 결코 가볍지 않다. 1층에서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의 비디오를 시청한 뒤, 2~3층에서 당시 청사의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다.

탐방단은 이어서 송경령능원을 찾았다. 외국인들의 공동묘지로서 상하이 만국공묘라고도 부르는 이곳은 중국의 정치가인 쑨원의 부인인 송경령 여사의 유해가 안장된 후부터 송경령능원이라 불린다. 이곳에서 탐방단은 예관 신규식 선생을 만났다. 김종훈 기자는 “예관 신규식 선생은 임시정부의 아버지”라며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자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한인 커뮤니티를 조직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송경령능원에는 신규식 선생과 함께한 독립운동가와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잠들어있다.

그래도 걷는다, 길이 될 때까지

해가 저문 뒤에도 탐방은 계속돼, 탐방단은 1919년 4월 11일 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서곡으로 20호에 도착했다. 비록 정확

한 장소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00년 전 이 거리에 귀한 발걸음들이 있었고, 그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국호와 정치 체제, 헌법 등의 첫 단추를 꿰었으며, 첫 번째 청사가 1919년 8월 18일까지 여기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 길을 걷다 보면 큰 규모로 입점해있는 의류매장 H&M이 눈에 들어온다.

김종훈 기자는 “옛 지도와 비교해본 결과 이곳이 ‘임시정부 2청사’가 있던 자리”라고 설명했다. 19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청사로 사용되어 외벽에 크게 태극기를 걸어두었던 이곳은 100여 년이 흐른 2018년 4월에서야 임시정부 2청사의 터로 확정되었다. 김종훈 기자는 힘주어 말했다. “건지 않는 길은 사라진다. 하지만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고, 이어서 신규식 선생의 거주지를 방문했다.

리모델링으로 옛 모습은 남아있지 않지만 을사조약에 항거하며 독약을 마시고,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을 때도 “나라가 망했는데 어찌 세상을 바로 보겠느냐”며 자신의 호를 ‘예관(睨觀)’으로 바꾼 그의 정신만은 또렷하다. 이후 탐방단은 윤봉길 의사가 의거 직전 김구 선생과 자신의 시계를 교환했던 원창리 13호를 찾았다. 여기서부터 의거가 일어났던 홍커우공원까지는 차로 한 시간 거리. 윤봉길 의사가 김구에게 남긴 “제 시계는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의 저의를 파악해볼 수 있었다.

첫날 일정은 의열단원들의 항일의거지인 ‘황포탄 의거지’(현재 와



둘째날 밤에 진행된 역사강의

2일자

- 05 김구 선생의 피난처인 매만가 76호 기념관에서 설명을 듣는 탐방단
06 김구 선생이 주푸청 양아들의 집 매만가 76호에서 남북호로 나가는 비밀통로였던 배의 모습을 관찰하는 탐방단



05



06

이탄공원)로 마무리됐다. 황푸강의 서쪽인 와이탄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가득하며, 덕분에 야경이 아름다워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의 공공마두(접안시설)는 1922년 3월 28일 의 열단원 오성륜, 김익상, 이종암이 목숨을 걸고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암살하려 한 곳이다. 그러나 작전의 실패로 오성륜과 김익상이 체포되었고, 오성륜은 탈옥에 성공했지만, 김익상은 20년 2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했다. 지금은 화려한 야경으로 관광지가 된 이곳에서, 독립을 열망한 그들의 숨결을 잠시나마 느껴보았다.

자성에서 하이옌 그리고 항저우를 향해

이튿날 탐방단은 김구의 도피 경로를 따라 상하이에서 자성으로 이동했다. 당시 김구는 중국의 정치가인 주푸청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그가 자신의 아들, 양아들, 며느리까지 동원해 1932년부터 1935년까지 김구를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섬 없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던 김구의 처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실제로 주푸청 아들의 집과 김구 가족이 머물던 곳이 불과 200m 떨어져 있었음에도, 김구와 가족들은 서로 같은 지역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

김구는 언제나 몸을 피하기 좋도록 물과 인접한 곳에서 머물렀다. 주푸청 양아들의 집에서 지낼 때는 남북호로 갈 수 있는 비밀통로를 만들고, 낮 동안 선상생활을 하며 국무회의 등을 준비하다가 안전이 확인된 날만 귀가해 눈을 붙였다. 1932년 7월부터 12월까지 머물렀던 하이옌의 재청별장 역시 뒤쪽으로 남북호가 펼쳐진다. 후에 김구의 아들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주푸청 가족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재청별장에 '음수사원 한중우의(飲水思源 韓中友誼, 물을 마시며 근원을 생각하듯 한국과 중국의 우정을 생각하자)'를 새긴 비석을 세웠다.

이후 탐방단은 항저우로 이동하여 1932년부터 1935년까지 사용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저우 청사로 향했다. 이곳은 유일하게 중국 정부에서 관리 중인 임시정부로, 복원작업 이후 2007년 11월 30일에 상하이와 충칭 청사에 이어 세 번째로 개관했다. 그리고 1930년 임시정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독립운동 정당인 한국독립당의 사무실 사흘방과, 사흘방으로부터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임시정부 요원들의 가족 거주지 오복리를 차례로 들렀다.

둘째 날의 마지막 일정은 김구가 머물렀던 숙소 군영반점이었다. 당시에는 임시정부가 항저우로 이전해 처음으로 사용한 청사 '청태 제2여사'였지만 현재는 국영여관 겸 음식점인 군영반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옛 모습이 남아있고, 지난 사드 사태 전까지는 김구가 머물렀던 객실에 선생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 임시정부의 국무원이었던 김철도 이곳 32호실에서 머물며 임시 국무위원회를 주관했다.



화청교에서 헌화하다

3일자

잊지 말아야 할 역사, 계속되어야 할 발걸음

셋째 날 아침이 밝자 탐방단은 난징 시내에서 교외로 1시간을 달려 천녕사에 도착했다. 천녕사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유적지로, 당시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장제스 총통에게 군 양성을 지원받아 설립한 학교다. 18~25세 청년 125명이 6개월간 군사 훈련과 정치 토론 등을 배우고 국내와 만주로 파견됐으나 대부분이 잡혀 들어갔다. 대표적인 이가 저항시인 이육사다.

지금도 대중교통으로는 찾아가기 어려운 외딴곳, 좁은 산길을 따라 인적을 피해 마련된 이곳에서 김종훈 기자는 제사상을 준비하고 학생들과 함께 125명의 청년에게 음복주를 올렸다. 어떤 기도를 드렸냐는 그의 질문에 학생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다.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기도했어요.”

탐방단은 다시 차를 타고 난징대학살 기념관에 도착했다. 기념관 입구에는 어머니가 죽은 아이의 주검을 안고 하늘을 보는 모습의 동상이 서 있다. 건물의 외관은 날이 중간에 끊어진 일본 군도를 형상화했는데 학살로 인한 난민, 조난자들의 피해를 상징한다. 동상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마주하게 되는 광장에서는 매년 한 번씩 국가가 주도하는 제사가 열린다. 이명 현지 가이드는 “이 역사를 뼈에 새기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인들



천녕사에 모이다

은 난징대학살을 ‘난징대도살’이라고 부른다. 평민을 사살한 일이 짐승을 대상으로 한 것만큼이나 잔혹했음을 뜻한다. 출구로 나오자 엄마가 비둘기를 하늘로 날리며 기뻐하는 모습의 동상이 반긴다. 함께 적힌 문구는 ‘평화’. 중국이 지나온 역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염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다음 장소는 한인특별반 학생 100~200명이 살았던 교부영이다. 윤봉길 의사 의거 후 김구 선생과 장제스 총통은 1933년 5월에 회담을 열고, 첫 번째 결실로 한인 특별반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그곳을 거치며 군사훈련을 받아 중국 장교가 되고 훗날 광복군이 되는데, 이들이 남경에 돌아와 머물렀던 집단 거주지가 바로 교부영이다. 여기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는 김구가 고물상을 운영해 신분을 위장하며 살아갔던 다리인 화청교가 있다. 현재는 확장 공사를 한 상태라 김구가 살았던 곳을 추측해볼 뿐이다. 이날 김종훈 기자는 학생들에게 국화꽃을 한 송이씩 선물했고, 학생들은 그 꽃을 다리 밑에서 나라를 지켰던 지도자 ‘고물쟁이 김구’에게 헌화했다. 이날 일정을 마친 탐방단은 1933년 5월, 김구가 장제스 총통과의 회담을 위해 머물렀던 중앙반점에서 하루를 묵었다. 김구는 이곳에서 치밀하게 회담을 준비한 덕분에 중앙육군군관학교에 한인특별반을 설치하는 등 독립을 위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냈다.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다

넷째 날의 공기는 사뭇 달랐다. 탐방의 마지막 일정이 리지상 위안소 유적 진열관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까. 이곳에 기록된 대부분의 위안부 피해자는 한국인이다. 내부 사진 촬영이 금지돼 있고 14세 미만은 입장할 수 없다. 나이 제한으로 이곳에 들어가지 못한 탐방단 학생들은 숙소 뒤편의 충통부로 향했다. 충통부는 김구와 장제스가 만난 회담장이다. 리지상 위안소 유적 진열관에 들어서면 한쪽 벽을 가득 메운 피해자 70여 명의 사진이 먼저 눈에 띈다. 내부는 여러 채의 건물이 연결되어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다. 피임도구와 생식기 검사 기구, 콘돔 등이 전시된 곳을 지나 한 층 더 올라가니 약병이 빼곡했다. 군인들이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처방했던 예방, 치료 차원의 약이다. 김종훈 기자는 “처음 여기에 왔을 때는 들어서자마자 약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이곳을 방문하면서 그 냄새가 희석되어가는 것 같다. 역사는 이렇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발전해간다”며 소감을 전했다.

탐방단은 다음 건물로 가는 길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의 동상을 마주했다. ‘마르지 않는 눈물’을 표현한 것이다. 학생들은 저마다 수건을 손에 들고 하염없이 흐르는 할머니의 눈물을 한참 동안 닦았다. 끝으로 향한 곳은 한국관, 조선반도 피해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공간이다. 이곳엔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과 함께 액세서리, 거울, 화장품 등 한국에 돌아갈

날을 꿈꾸며 자신을 단장했던 열여섯 소녀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다시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지금 세대의 수요집회가 기록되어 있다. 김종훈 기자는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운을 뗐다. 역사는 우리의 생활과 같은 공간을 점유하기 마련이다. 리지상 위안소 유적 진열관은 난징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고 주변은 온통 고층 건물이다. 난징에서 재개발이 이뤄지던 도중 이 유적을 복원하는 일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터. 김종훈 기자가 ‘선택’과 ‘기록’을 자꾸만 역설하는 이유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난징 공항으로 향하는 길, 탐방단은 버스 안에서 “오늘 우리가 겪은 역사의 체취를 잊지 않겠다”, “탐방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저마다의 가슴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100년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물이 채워지고 있었다. ㉞

중앙반점 앞에서 기념사진



Mini Interview

‘임시정부 100주년’ 역사탐방을 마치며



**“학생들에게 두고두고
기억될 시간으로”**

황재필(천왕중학교 교사)

사실 아침부터 밤까지 빠듯한 역사 탐방 일정에 학생들이 소화하기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파심과 달리 마지막 날까지도 적극적으로 탐방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교육 효과도 만족스럽고, 4일간 듣고 경험한 내용이 학생들에게도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의 이 길을
건게 되길”**

심기주(천왕중학교 2학년)

잘 몰랐던 독립운동가와 역사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특히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가 시계를 주고받았던 장소가 기억에 남아요. 나라를 위해 죽는다는 게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긴 어렵잖아요. 또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나라라는 걸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과 함께한 제16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아름다운 가을날, JAZZY하게 소풍 갈까?

지난 10월 5일, 자라섬에서는 열여섯 번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누적 관객 200만 명에 달하는 이 유서 깊은 음악축제에 공제회 회원 및 가족 2,000명을 초대, 깊어가는 가을날 재즈를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선물했다. 그 축제의 현장을 지상 중계한다.

글. 이경희 사진. 김도형





재즈 속에서 만나는 지역사회와의 공생

재즈라는 음악이 익숙지 않았던 2004년, 가평군에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재즈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모두를 위한 나들이, 소풍 같은 축제를 지향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렇게 시작했던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첫해에 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지만 2013년에는 무려 27만 명의 관객이 찾아들면서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초대형 재즈음악축제로 온전히 자리를 잡았다.

10월 5일, 16번째 개최되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두 번째 날. 오늘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초대한 회원들이 공연을 즐기러 오는 날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초임부터 밀려드는 차와 인파를 뚫고 한국교직원공제회 부스에 도착하니 일찌감치 회원들을 맞을 준비를 마친 공제회 직원들이 모습이 보인다. 오는 회원들을 기쁘게 맞는 이곳에는 예쁘게 포장된 수제 살구 음료가 한가득 놓여있다. 가족 단위 회원들이 많이 오는 만큼 커피나 차가 아닌, 달콤한 음료를 준비한 것이다.

“이번에 공제회에서 준비한 수제음료는 이곳 가평군 협동조합에서 직접 주문한 것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상생 운동에 동참한 거죠. 오늘 회원들에게 드릴 ‘살구담담’은 이곳 가평군에서 나는 살구를 이용해 가평군 협동조합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회원복지부의 오진봉 팀장이 설명해준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팔찌를 손목에 감은 회원들이 끊이지 않고 부스로 찾아온다. 아침부터 시작된 빗줄기가 꽤 굵었음에도 우산에 우비로 단단히 중무장한 회원들의 표정은 싱글벙글, 비 따위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얼굴이다. 캐리어부터 왜건까지 다양한 짐을 싣고 온 모습을 보니 음악은 물론, 분위기, 맛까지 즐기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속초, 대전 등 지방에서 올라온 회원들의 숫자도 꽤 된다고 공제회 직원이 살짝 귀띔해준다.

JARASUM
FESTIVAL





가장 행복한 음악 소풍

올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열렸다. 자라섬 캠핑장 입구와 캠핑장 내 다목적 운동장에서는 무료 공연이 열리고, 안쪽에 자리 잡은 재즈 아일랜드와 중도무대에서는 유료 공연이 열리는 것. 부담 없이 재즈를 즐기곤 나들이 관객들은 무료 공연장을 이용하고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을 제대로 느끼고 싶은 관객들은 안쪽으로 이동하면 된다.

다행스럽게도 온종일 내릴 것 같은 비가 그쳤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기업 홍보부스에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 소리도 더욱 커졌다. 유료 공연장을 오픈할 시간이 다가오자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의 줄이 점점 길어진다.

마침내 오후 2시 30분, 재즈 아일랜드가 그 문을 열고 사람들이 환호성과 박수를 치며 입장을 시작했다. 먹을거리 판매와 이벤트를 위한 천막들이 줄지어 들어서 축제의 분위기를 돋우는 가운데 관객들 모두가 뛰다시피 걷기 시작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눈치작전이다. 돛자리를 깐 관객들이 각자의 집에서 꺼내는 품목을 보자 입이 절로 벌어진다. 등받이 의자, 간이테이블, 과일, 와인, 맥주, 도시락, 치킨, 치즈 등 물품이 끝없이 나온다. 가을 강바람을 막기 위한 담요와 패딩, 핫팩 등 준비물을 보

아하니 한두 해 참석한 스킬들이 아니다. 실제로 바로 옆 커플 관객에게 물어보니 “5년째 참석하고 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다들 한가롭게 먹고 마시며 공연을 기다렸다. 비 때문에 리허설이 늦어졌지만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다. 그저 여유롭게 주어진 시간을 즐길 뿐이다.

잊지 못할 가을밤의 자라섬이 될 거예요

오늘 라인업은 재즈 마니아라면 꼭 와보고 싶을 만큼 화려한 면면을 자랑했다. 티네케 포스트마 그룹 ‘프레야’, 오마르 소사 콰르테토 아프로 쿠바노, 매튜 휘태커 쉐킷, 더 대니쉬 라디오 빅밴드 & 마릴린 마주르 등이 바로 오늘 무대에 설 팀들이다.

티네케 포스트마 그룹 ‘프레야’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재즈 아티스트로 영국 가디언지로부터 ‘포스트-밥의 천재’라는 평가를 받은 명성만큼 수준 높은 색소폰 실력을 선보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축제에 초대를 받아서 기쁘다. 너무 멋지다”라는 감탄사를 감추지 못한 티네케 포스트마의 진심 어린 인사에 관객들 또한 큰 박수를 보냈다.

관객들이 가장 뜨거운 호응을 보인 것은 오마르 소사 콰르테토 아프로 쿠바노 팀이었다. 오마르 소사는 작곡은 물론 연주, 특유의



Mini Interview

춤사위까지 아프리카 고유의 리듬과 흥을 실어 연주하는 재즈 아티스트. 꾸밈없는 흥겨운 몸짓과 음악으로 관객들을 내내 환호하게 하더니 보기 드문 앙코르 합성까지 끌어낸 뮤지션이었다. 우리의 장단과 일맥상통하는 듯한 라틴재즈의 정수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18살의 천재 재즈 피아니스트 매튜 휘테커 켈텃 역시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큰 박수를 받았는데 시각장애인으로서 음악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감동으로 인해 관객들로부터 더욱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 중간마다 재미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영상으로 계속 보여준 자라댄스 자랑시간을 관객들로 하여금 직접 취보게 하는 시간을 가지는가 하면, 페스티벌 총감독이 직접 무대로 올라와 페스티벌 포스터 제작자를 소개하며 생일축하 노래를 유도하기도 한 것. 모두가 웃고 즐긴 여흥시간이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리고 관객들의 테이블 위에 하나 둘, 각자 가져온 전등을 켜 시간.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더 대니쉬 라디오 빅밴드와 퍼커션의 마릴린 마주르가 맡았다. 1964년에 결성, 올해로 55주년을 맞이한 이 밴드는 관록과 힘이 넘치는 연주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다. 실력과 재즈 뮤지션들의 탄탄한 연주와 재즈가 가진 즉흥적인 아름다움, 마치 소풍을 나온듯한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던 오늘 하루,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에게 올가을, 가장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으리라 확신한다. (K)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QR 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재즈 뮤지션들의 열정이 가득한 화려한 축제 현장을 함께 즐겨보세요. (P)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길”

오진봉(회원복지부 문화복지팀장)

이번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초대 이벤트에는 무려 7,000명의 신청자가 몰려 7: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7년 회원 초대 당시 만족도와 호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우리 회원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태풍 소식에도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가을날의 추억”

박찬은 회원(세브란스병원 간호사), 김미래(친구)

공제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이번 이벤트를 발견하고 응모를 했어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한 번쯤 꼭 와보고 싶었던 페스티벌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얻어 처음으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오는 도중에 비가 내려서 당황스럽긴 했는데 상관없이 아주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뜻밖의 초대에 행복 가득”

장서영 회원(청평중 교사)

이 근처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는 와볼 생각을 못 했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응모했는데 뜻밖에도 초대를 받아서 정말 기쁩니다. 비가 오더라도 무조건 참석한다고 생각하고 달려왔어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자주 열어주시는 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즐기고 갈게요!



The-K 은빛동행 '청춘 미디어 아카데미' 교육 현장 탐방 미디어로 내 삶을 돌아보다, 새로운 삶을 만나다

세상이 변했다. 퇴직을 하면 집에서 손자·손녀를 보거나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던 시절은 이제 옛말. 실버세대를 넘어 뉴실버세대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2의 삶을 살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주관하는 The-K 은빛동행 '청춘 미디어 아카데미'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대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미디어. 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나선 공제회 회원들의 뜨거운 배움의 현장을 공개한다.

글. 이경희 사진. 김도형





미디어로 소통하는 시대

미니홈피 시절을 지나 유튜브까지 왔다. 글과 사진으로 만족하던 사람들은 이제 훨씬 직관적인 영상으로 세상과 소통하길 원하고 유튜브는 이 같은 시류를 타며 거대한 수익 창출과 함께 세대와 국경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청춘 미디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도 이 같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다. 퇴직 회원들이 미디어를 자연스럽게 다루면서 자유롭게 세대 간 소통을 영위할 수 있다면 인생 제2막은 훨씬 풍요롭고 행복할 터. 과연 그들의 새로운 도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지난 9월 25일, 퇴직회원들이 한창 '열공' 중인 부산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향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를 통해 전 국민의 소통과 인재 육성을 이루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MOU를 맺고 이번 미디어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다.

〈3분 다큐 '나와 나의 이야기'〉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은 오전 9시 30분. 그러나 일찌감치 도착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삼매경에 빠

진 회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번 교육을 통해 꽤 친해진 듯 보인다. 보조교사들도 속속 도착했다. 18명 수업에 보조교사 숫자가 무려 3명, 강사까지 포함하면 총 4명의 교사가 수업에 투입되는 셈인데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은 이곳 센터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사가 나중에 살짝 귀띔해주기도 했다.

9월 18일부터 시작한 수업이 오늘로 6번째. 그동안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디어리터러시', '영상제작과정의 이해' 등의 수업을 통해 이론과 실기를 공부해 온 회원들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직접 촬영해온 영상을 가지고 편집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내 삶을 내가 찍는다

오늘 강의를 맡은 김진희 강사가 먼저 회원들에게 직접 카메라 장비를 들고 촬영해본 소감을 물었다. 지난 수업시간 동안 팀을 나누고 팀별로 어떤 내용의 영상을 찍을 것인지 영상기획안과 구성안까지 직접 작성한 회원들의 표정이 환해진다.

'오늘을 걷다' 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팀, '인생 2막 텃밭에서' 팀, '헬스가 답이었다' 팀 모두가 실제 촬영에 나가서 겪은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동선을 잘못 잡아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서 힘들었다는 이야기, 텃밭 장소까지 찾아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고생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너무 아름다운 텃밭에 힐링이 됐다는 이야기, 특별히 어떤 회원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칭찬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회원들의 표정에서는 직접 촬영을 해본 경험에 대한 설렘과 자신감이 묻어난다. 내친김에 회원들이 작성한 영상구성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장면 넘버, 비디오, 오디오, 시



간 등이 디테일하게 나눠진 항목 밑에 꼼꼼하게 작성된 텍스트들이 보인다. 담담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내레이션 문장 속에는 자신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대로' 만들어보겠다는 진지함과 고민이 엿보인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편집 강의가 시작됐다. 지난 시간에 회원들이 촬영해온 영상을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해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회원이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이기에 다들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못 알아들을 것 같다고 지레 걱정하는 회원에게 보조교사들이 "저희가 대기 중이니 언제든지 불러 달라"고 독려한다. 먼저 편집에 대한 정의, 영상의 구성요소, 편집의 단계, 주의사항에 관한 강의를 들은 뒤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열었다. 확실히 이번 미디어 교육 일정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다. 프로그램을 열어 파일을 불러오고, 영상 중에서 어느 부분을 잘라 쓸 것인지 선택하는 등 다양한 전문 기술들이 만만치 않았던 것. 보조교사들은 물론 강사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따라오지 못하는 회원들을 챙기고, 그 와중에 영상 쪽에 작게라도 경험이 있는 회원들은 처음 도전하는 회원들을 돕는다. "오늘 아무래도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선생님들이 기획하고 구성할 때는 굉장히 즐겁게 잘하셨거든요. 자기 얘기를 풀어내는 것,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 모두 뛰어나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테크닉 부분을 배우는 것이어서 쉽지 않으실 거예요."

김진희 강사가 미소를 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희 강사는 이번 수강생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선생님들의 수업 태도가 매우 좋습니다. 사실 교육계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니까 조금은 고집스러운 면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이 유연하고 흥미도와 참여도가 매우 높아 놀랐어요. 무엇보다 자



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선생님께 미루는 게 실례인 걸 알기에 강한 책임감을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즐거운 매개체로 풍요로운 노후를

열심히 배우는 회원들 사이를 누비다가 '인생 2막 텃밭에서' 팀의 작업에 잠시 합류해 보았다. 이곳에서 처음 만난 회원이라기보단 오래 알고 지낸 듯한 살뜰한 정이 넘치는 팀이다. 모두 70대로 연배도 비슷하고 이번 작업도 장소 제공부터 운전, 촬영, 편집까지 각자가 가진 재능들이 있어 수월하고 즐겁게 이번 미디어교육을 진행하는 중이다.

"대학 친구들을 만나는 느낌입니다. 같은 교육계에 종사해서 그런지 금세 친해졌는데 영상 촬영을 하러 다니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공유할 수 있는 추억도 많고 무엇보다 삶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를 기획하면서 공감대가 많아 행복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남녀공학 고교생 동아리에서 만난 양 4명의 회원이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현대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나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된 지금, 미디어의 활용은 개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60대를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60대가 되면 트렌드에서 벗어나 소외되는 현실. 이번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은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언어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 다





른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요즘 60대에 퇴직해서 노인정을 가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드론, 레이싱카를 배우는 이유는 손자·손녀와 함께 취미활동을 즐기기 위해서죠. 이번 미디어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계기의 첫발을 떼었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한 배움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표현 방법, 소통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시청자사업팀 박형근 선임이 잊지 않고 당부했다. 미디어 교육이 후반부로 향해 갈수록 아쉽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회원들. 교육을 통해 젊은 사람들이나 기술에 특화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즐거운 매개체로써 미디어가 오래오래 회원들과 함께하길 바라본다. (K)

TIP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전문기관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총괄, 시청자 지원, 방송시장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 국민의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 활용능력, 미디어를 통한 소통 능력 증진에 기여한다.



Mini Interview



**미디어와 함께
더 즐거운
인생을**
하운중 회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보고 청춘 미디어 아카데미에 응모했습니다. 평소 자식들이 보내주는 사진을 모아서 동영상도 만들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는데 교육 내용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고급스럽네요. 촬영 카메라도 처음 만져보고 다양한 미디어 교육 기회가 주어지니 이 분야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기초과정이나 총 수강 시간을 늘려주면 더 좋겠어요. 미디어를 통해 인생을 더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움으로
다시 찾는
젊음**
김혜경 회원

교사로 퇴직한 지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번 아카데미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평소 걷기 운동을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사진을 나열만 하는 것보다는 테마를 잡고 음악과 자막이 들어간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기계치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어렵긴 했지만, 확실히 재미는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늘 젊은이들의 뒷전에 있는 게 아쉬웠었는데 공제회 측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퇴직회원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부탁드립니다.



**영상미디어를
통해 달라질
삶에 대한 기대**
이영순 회원

매우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진보다는 영상으로 저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튜브에 올리면 구글에 오래도록 영상이 남는다는 데 이 시대의 스승과 제자는 어떻게 지냈는지 기록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업이 제 미래를 더 즐겁게 바꿔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상시 할인 혜택 및 티켓 증정 이벤트

... CGV·메가박스 상시 영화 할인 ...

공제회 회원이라면 CGV와 메가박스에서 할인을 받아 7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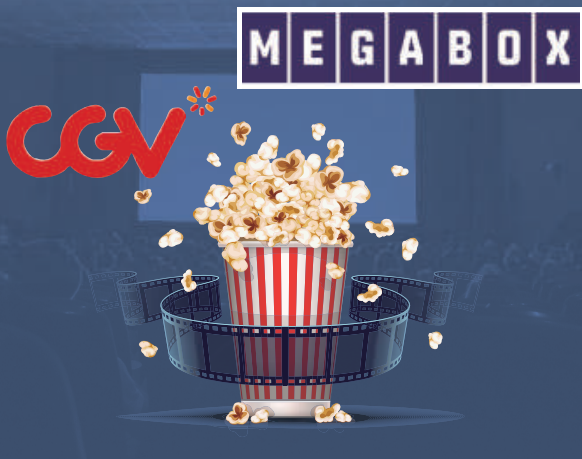
이용 방법은

- ① 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 ② 복지서비스 ➡ 문화공연 ➡ 영화 ➡ CGV 또는 메가박스 선택 ➡ 할인 예매권 번호 발급받기
- ③ 'CGV와 메가박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티켓 결제 시 할인 쿠폰번호 등록 후 결제하면 된다.

1일 1회 2개의 할인 예매권 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평일·주말·공휴일 모두 사용 가능하다. 영화관별로 카드사 중복할인도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단 2D 일반관만 할인 가능하며, 일부 극장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회원증 지참 시 영화관 현장에서 프로모션 콤보를 제외한 모든 매점 콤보를 20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

... 매달 '씨네&JOY' 영화 티켓 증정 이벤트 ...

매월 CGV·메가박스 무료 영화 관람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개최한다. 11월은 메가박스, 12월은 CGV에서 이용 가능한 영화 관람권을 회원 2만 명에게 2장씩, 총 4만 장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 참조.



뮤지컬 '운동주 달을 쏜다', 11월 11일~ 24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함께하는 '문화라운지' 뮤지컬 관람행사가 12월 6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전관행사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일제 강점기라는 아픈 시대 속에서 시를 통해 고뇌와 고통을 표현했던 시인 윤동주의 이야기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스포츠&JOY 프로농구 행사, 11월 4일 ~ 13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1월 19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울SK-창원LG' 경기에 회원 200명(1인 2매)을 초청한다. 관람 응모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받는다. 한편 10월 25일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사)한국여자농구연맹은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여자농구 저변 확대 및 회원에 대한 홍보에 관한 협력 등 기타 다각적인 상호 협력을 맺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여자프로농구 2019~2020 시즌(정규경기,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 올스타전) 입장권을 50% 할인 구매할 수 있으며 공제회 회원과 동반인 전원 혜택받을 수 있다.

공제회원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 'The-K 마음쉼'

교직원공제회 회원이라면 일상의 모든 고민을 전문가에게 상담·코칭받을 수 있는 'The-K 마음쉼'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The-K 마음쉼'은 일상 속에서 쌓여가는 교권침해, 직무 스트레스, 우울·불안·분노, 부부 문제, 자녀양육, 가족 내 소통 등에서 오는 갈등과 고통을 상담으로 치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공제회 현직회원이라면 누구나 1인당 5회까지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The-K 마음쉼' 전용 홈페이지(www.ktcu-hue.com), 모바일앱, 전화 (1566-5228)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 83조에 의해 회사 및 타인에게 철저히 비밀 보장된다.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월~토요일)이며, 상담방법은 1:1 대면상담, 전화상담, E-mail 상담 등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상담장소는 전국 상담센터 및 신청 회원이 원하는 장소(상담사와 협의 후 결정, 자택 제외)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학교나 소속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힐링 배달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원예활동 및 향초 만들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다. 'The-K 마음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The-K호텔 가을·겨울 소식



The-K호텔서울, 윈터 힐링 패키지



The-K호텔서울은 겨울을 맞아 내년 2월 28일까지 ‘윈터 힐링 패키지’를 선보인다. ▲윈터 패키지 A는 일반실 1박, 우체로 모닝 뷔페 2인 구성이 15만원 ▲윈터 패키지 B는 일반실 1박, 더파크 저녁 뷔페 2인 구성이 18만원이다. 윈터 패키지 이용 고객은 호텔 내 사우나 및 헬스장 시설 50% 할인과 우체로, 더파크, 델리의 식·음료류를 15% 할인받을 수 있다. The-K호텔서울 내부의 조깅코스과 연결된 서초문화예술공원은 메타세콰이어길을 비롯 소나무, 느티나무, 잣나무 등 43종 9만 4천여 그루의 나무로 울창한 수림대가 조성되어 있어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안성맞춤이다. ☎02-571-8100

The-K호텔경주, 11월 특별 패키지



The-K호텔경주는 ‘가을&EXPO 패키지’를 11월 30일까지 선보인다. ▲A형 가을 패키지는 스탠다드 1박, 조식 2인 구성이 12만5000원부터 17만원이다. ▲B형 EXPO 패키지는 스탠다드 1박, 조식 2인, 엑스포 입장권 2인 구성이 14만3천원부터 15만8천원이다. 온돌 객실 이용 시 5000원이, 조식 인원 추가 시 1인 1만5000원이 추가된다. 사우나 시설은 할인 적용받아 7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The-K호텔경주의 스파월드는 경주시 지정 최우수 사우나로 지하 630m에서 용출되는 100% 천연온천수를 사용하여 피로회복 및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특히 야외노천탕은 우거진 자연 숲속에 위치해 운치가 뛰어나다.

☎054-745-8100

The-K설악산가족호텔, 11월 특별 할인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11월 한 달 동안 20평형 기준 특별가로 2만 5000원, 29평형 기준 특별가 5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객실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예약은 전화로만 가능하며, 1인 1실 할인 혜택으로 성수기 및 극성수기 기간에는 별도 요금이 적용된다(준성수기 : 11월 금, 토요일 / 성수기 : 12월 24일, 12월 30일, 1월 1일 / 극성수기 : 12월 31일). 또한 장기투숙객을 위한 ‘휴스테이 힐링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연에서 편안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롱스테이 고객을 위해 20평형과 29평형을 특별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고 있다. 8일 이상 투숙 시 8일째 투숙부터 20평형 기준 특별가 1만원에 이용 가능하다.

☎033-639-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막바지 가을여행 패키지’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공제회 회원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막바지 가을여행 패키지’를 선보인다. 객실(17평형 기준) 1박, 온천 2인 구성이 5만원부터 9만원이다. 전남 구례산동면에 위치한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온천 시설을 갖춰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에 좋다. 특히 천연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온천수는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061-783-8100

The-K Guide

공제회의 각종 금융제도와 복지서비스 보험 1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 특별법(법률 제2296호)에 의해 설립된 교직원복지기관으로 교직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과 교육가족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의 경우 대부분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자가 선택한 납입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국내 최초로 교직원 전용 위험률을 산출하고 여기에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부과하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수
81 만명

자산
37 조 원

○ 방문시간 9:00~18:00
○ 전화상담 1577-3400

※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Best

종합보험

종합공제 교직원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종합보험

- ★ 비갱신형, 100세까지 보장
- ★ 다양한 보장 마련으로 개별 맞춤형보험 설계(암, 입원, 수술, 성인병, 재해, 뇌출혈 등 총 22개 특약 중 선택)
- ★ 교직원만을 위한 특별한 3가지 특약마련(해당특약 가입 시)
 - ① 교직원 3대 만성질환: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무지외반증
 - ② 교직원 생활질환 보장: 눈 및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요로결석
 - ③ 교직원 공상퇴직 보장: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 장애상태로 퇴직 시 1천만원 지급(1구좌 기준, 최초 1회한)
- 가입나이 : 만 15세 ~ 65세
- 보장기간 : 종신(주급여), 10·20년 만기, 60·80·85·100세 만기(일부 특약 만기 상이)
- 납입기간 : 5·10·15·20·25·30년납, 60·70·80세납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일시납

더블업종합공제 60세 이후 2배 보장받는 종합보험

- ★ 비갱신형, 100세까지 보장
- ★ 60세 이전 사망보장 2배(주급여에 한함), 60세 이후 건강보장 2배(특약에 한함) 강화
- 가입나이 : 만 15세 ~ 40세
- 보장기간 : 종신(주급여), 10·20년 만기, 60·80·85·100세 만기(일부 특약 만기 상이)
- 납입기간 : 5·10·15·20·25·30년납, 60·70·80세납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일시납

※ 종합보험은 주급여 3구좌 가입 이상 시 가입일로부터 3년간 24시간 365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특화보험

교직생활퍼펙트공제 선생님의 교직생활에 꼭 필요한 교원특화보험

- ★ '업계최초' 마음질환 진단 시 진단비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제공
- ★ 질병휴직 및 공무상 퇴직·사망 시 일정소득 보장
- ★ 각종 특약으로 폭넓은 보장 및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 가입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에서 정한 교원
- 가입나이 및 보장기간 : 20세~50세 / 62세 만기(※모성보호특약은 40세 만기)
- 납입기간·주기 : 5·10·15·20년납(※모성보호특약은 5년납) / 월납, 연납

마음건강보장공제 교육가족의 마음건강까지 생각하는 보험

- ★ '업계최초' 마음질환 진단 시 진단비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제공
- ★ 납입한 보험료를 납입기간 완료·만기 시 환급해주는 원금보장형 상품
- 가입나이 : 만 15세 ~ 50세
- 보장기간 : 65세 만기
- 납입기간·주기 : 10년납 / 월납

건강보험



두번보장암공제

두 번째 암까지 보장받는 암보험

- ★ 비갱신형, 100세까지 보장
- ★ 주급여 하나로 암진단·입원·수술까지 종합보장
- ★ 5대암 진단비, 항암치료비 보장, 두 번째 암 발생시 진단비 보장(해당특약 가입 시)
※ 두 번째 암이란? ① 새로운 원발암 ② 동일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③ 동일장기 재발암
- 가입나이 : 만 15세 ~ 65세
- 보장기간 : 85·100세 만기
- 납입기간 : 5·10·15·20·25·30년납, 60·70·80세납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일시납

교직원라이프건강공제

암 진단비에 집중한 실속 있는 건강보험

- ★ 암 진단비에 집중한 주급여로 저렴한 보험료
- ★ 입원, 수술부터 중증치매, 2대 질병까지 폭 넓게 보장(해당특약 가입 시)
- ★ 최초계약 만기 시 건강관리자금 100만원 지원
- 가입나이 : 만 15세 ~ 65세
- 보장기간 : 최초 15년 갱신 10년(최대 100세 단, 정기특약 및 중증치매진단특약은 최대 85세)
- 납입기간·주기 : 전기납 / 월납

교직원라이프간편가입공제

- 유병자, 고령자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
- ★ 3개월 이내 입원·수술 및 추가검사 필요조건 無
- ★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입원 및 수술력 無
- ★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입원 및 수술력 無 이면 가입 가능
- 가입나이 : 40세 ~ 80세
- 보장기간 : 최초 15년 갱신 10년(최대 100세 단, 정기특약 및 중증치매진단특약은 최대 85세)
- 납입기간·주기 : 전기납 / 월납



교직원생활퍼펙트공제·마음건강보장공제 가입 시 누릴 수 있는 혜택

건강관리 서비스



전화 건강상담

전문의료진을 통해 맞춤 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예약

검진 항목 설계 및 예약대행, 최대 40% 우대



대형병원 진료예약

전국 대형병원 fast track 진료 협력센터를 통해 예약 지원



전화 심리상담

전화를 통해 전문 심리상담사와 맞춤상담 제공

의료지원 서비스



방문 간호서비스

중대질환 진단으로 3차 의료 기관 진료, 입원 수술 시 전문 간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제공 하는 서비스(최대 6회)



차량 에스코트

중대질환 진단으로 수술을 위해 입·퇴원 시 차량편의 제공 *서울지역에 한정하여 제공(최대 3회)

마음건강 치료



대면심리상담치료(1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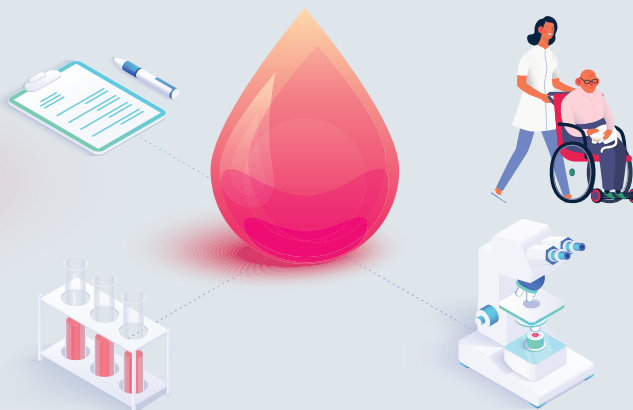
심리 검사(16회)



가족 심리상담(2회)



1:1 고객관리



특화서비스



마음질환 관리

우울증, 치매 자가진단 프로그램 제공
전문 심리상담센터 방문 우대(최초 20%, 이후 10%)



교직원질환 관리

교직원 3대 만성질환
대형병원 진료 예약&건강정보 제공



임신, 출산관리

- (산부인과 위주) 대형병원 진료예약 대행
- 미숙아 출산 시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최대 2회)
- 출산 전, 후 시기별 맞춤 콘텐츠 제공



운동습관 개선

도전과제를 부여하고 달성자에게
추천을 통해 경품 제공



건강 정보

다양한 건강 콘텐츠를 모바일로 제공(월 1회)

※ 특화보험 상품 가입자에 한해 제공하며, 마음건강 치료 서비스는 지급사유 발생 시 이용

나를 표현하는 기술, 프레젠테이션

PRESENTATION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 어떻게 내 이야기를 듣게 할 것인가? 그 많은 정보 가운데 나의 이야기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키워야 하는 이유이며, 단 한 순간도 프레젠테이션이 아닌 상황이 없음을 기억하자.
글. 이민영(현대경제연구원 전문교수)



요즘은 면접이라는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선택되기 어려운 때가 되었다. 즉, 더욱 간절하게 나에 대한 어필이 필요하다. '종합예술'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프레젠테이션, 굉장히 작은 여러 가지 모습이 합쳐져서 발표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프레젠테이션 전략으로 나를 더욱 돋보일 수 있을까?



내용 속지는 기본이다

프레젠테이션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때는 바로, 청중이 달라졌을 때다. 학부모, 또는 조직 내 동료, 또는 학교 이외의 곳에서 하게 되는 강의 등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이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자 스스로가 내용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자료를 PPT에 전개하고 이를 읽듯이 전달하는 것은 앵무새가 하는 일이다.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작업이 먼저다. PPT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료를 찾고, 내용을 숙지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청중은 내가 전문가인지 또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를 읽는 사람인지 단박에 알아낸다. 내가 내용 전문가라면 슬라이드를 향한 몸짓이 아닌, 청중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고 편안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해진다.



내 말투 그대로, 자연스럽게 전달하라

대중 앞에서 공적인 스피치를 할 때면, 부자연스러운 말투가 나올 때가 있다. 평소에는 재미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긴장하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말투로 청중과 소통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다 나까체'의 딱딱한 말투보다는 평소에 내가 사용하는 말투로 자연스럽게 전달했을 때, 청중도 편안하게 느끼며, 내가 전문가임이 전달된다. 내가 내용 전문가라면, 아주 편안하게 전달이 가능하다. 단, 여기에 조건이 있다. 나의 부정적인 언어습관 등은 배제될 필요가 있으니, 본인이 말하는 것을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체크해 볼 상황은 주어, 동사 관계가 일치하는지,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없는지 등을 체크해서 제거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만약 주어, 동사의 연결이 안 되는 언어 습관을 갖고 있다면, 사전에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연습해 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소리내어 연습하라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 아쉬웠던 적은 없었는가? 혹은 너무 짧게 끝낸 적은 없었는가? 바로 원고 작성을 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다. 아나운서나 MC들 그리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들도 방송할 때, 말 하나하나 모두 대본에 계획된 것이다. 물론 자연스러운 애드립은 가능하다. 애드립으로 녹화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대본에 없는 애드립이 방송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 연예인 참 말을 잘한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미리 시나리오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분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면, 실제 20분 분량의 원고 작성 후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해야 한다. 이때 꼭 소리 내서 연습해야 함을 명심하자. 그래야 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스토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듯 전달하라

유독 말을 잘하고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마 주된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일 가능성이 크다. 스토리텔링의 장점은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한다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사례로 이야기할 때, 더욱 몰입에 용이한 프레젠테이션이 된다. 신문이나 책, 또는 TV를 볼 때마다 인상적인 부분을 늘 모아두자.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에 넣어 두기도 하고, 또는 파일로 모아두는 것이다. “와, 이 내용은 셀프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 “이 사례는 학부모 교육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기억하려면 쉽지 않으므로 수집을 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어 사용한다. 스토리로 전달이 될 때, 기억에 잘 남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니, 일거양득임을 기억하자.



웃차림은 청중과 비슷하게, 하지만 좀 더 단정하게 연출하라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다양한 요소에는 스스로를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심리학자인 매라비안 교수는 ‘매라비안 차트’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때, 시각적 요소가 55%의 영향력이 있음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다.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도착했을 때, 누가 봐도 오늘의 발표자는 “나”임이 표시가 나와야 한다. 신뢰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잘 차려입는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불편함이 프레젠테이션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청중과 최대한 비슷하게 입되, 조금 더 단정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입는 정도를 권한다. 여기에 시선과 자세 등 눈에 보이는 모습 부분에서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모습의 연출을 유지한다. ㉠

11월호



독자퀴즈



이번 호 <The-K 매거진>을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100명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1만원)을 드립니다.

※ 독자퀴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정답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소속 기관명), 휴대폰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응모 기간 : 11월 1일 ~ 11월 30일

Quiz 1.

조선 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주목받은 나운규 선생이 1926년 각본·주연·연출한 영화로, 항일민족정신을 주제로 하여 당시 민중들에게 혁명적으로 다가간 영화의 제목은?

○○○

Quiz 2.

국내에서 인정하는 초대형 재즈 음악 축제로, 올해 16회를 맞아 공제회 회원들에게 아름다운 가을밤을 선사한 페스티벌은?

○○○ ○○ 페스티벌

Quiz 3.

아래 두 장의 사진 중 다른 부분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찾아 표시한 후 사진을 찍거나, 웹진이나 앱 구독자의 경우 다른 부분을 글로 설명해 보내주셔도 됩니다.



※ 9월호 독자퀴즈 및 독자의견 선정자는 웹진(www.thekmagazine.co.kr) 혹은 QR 코드를 통해 11월 1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월호 선정자는 12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 의견

<The-K 매거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칭찬부터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리고 따끔한 충고까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독자 메일은 <The-K 매거진>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점과 새로운 의견(The-K 매거진을 통해 읽고 싶은 기사) 등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3만원)을 드립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이메일 thekmagazine@ktcu.or.kr

*메일을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소속 기관명),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The-K 매거진
11월 즉석당첨 이벤트

별이
빛나는
밤,

별처럼 반짝이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처럼,
쏟아지는 선물
한번 받아볼까요?



내 마음도
반짝반짝!

| 이벤트 기간 | 11월 1일 ~ 11월 30일



SPC모바일상품권
10,000원권(100개)



CU편의점모바일상품권
5,000원권(200개)



이디야 카페라떼
Regular(500개)

참여 방법

경품 옆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11월 즉석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정보를 확인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유의 사항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은 12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 이벤트 응모는 1일 1인 1회만,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가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정행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재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직원이라면 종합보험 대신

종합공제 (1610)
드르게 인지상정!

교직원 맞춤형 특약에
보험료 인상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쫓~ 누리다가 만기 생존 시
환급까지 받는 보험

종합공제

(1610)



※ 환급형 선택시